

『涅槃經宗要』의 註釋的 연구(I)

李平來*

일러두기

1. 『大正新脩大藏經』第38卷, No. 1769, 『涅槃經宗要』를 번역의 底本으로 한다.
2. [] : 底本の 것을 東文選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遍[通] 通을 遍으로 수정한다는 말.
3. [] : 底本에 없는 것을 글의 흐름에 따라 보충한 것.
예) [大] 를 보충한다는 말.
4. < > : 글의 흐름에 따라서 삭제한 것.
예) <無> 無를 삭제한다는 말.
5. () : 글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無有(有無) 有無를 無有로 수정한다는 말.
6. < >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滅<識> 識을 滅로 수정한다는 말.
7. ≤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보충한 것.
예) ≤亦≥ 亦을 보충한다는 말.
8. 【 】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삭제한 것.
예) 【依】 依를 삭제한다는 말.
9. 『大正藏』 : 『大正新脩大藏經』
10. SED: Sanskrit - English Dictionary, Sir Monier
Monier - Williams Oxford University Press, 1899

涅槃宗要

이 경을 <풀이하는 데> 두 부분이 있다.

첫째는 大體的 意義를 서술하며, 둘째는 分析的 展開를 하려고 한다.

是經有其二門。一者略述大意。二者廣開分別。

제일 대체적 의의

본디, 니르와아나nirvāṇa,¹⁾ 이것을 道라고 할 경우, 道가 아니면서 道가 아닌 것이 없으며, 安住하지 않으면서 安住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그 道가 지극히 가깝고도 지극히 먼 것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그 道를 깨달은 이는, <이 道가> 아주 고요하기도 하고 아주 우렁차다는 것을 <안다>. 아주 우렁차기 때문에 두루 여덟 가지

1) SED p.557b

nir - √vā to blow(as wind); to cease to blow; to be blown out or extinguished; to put out.

nirvāṇa(Pali: nibbāna) n. extinction of the flame of life, dissolution, death or final emancipation from matter and reunion with the Supreme Spirit; (with Buddhists and Jains) absolute extinction or annihilation (=śūnya) of individual existence or of all desires and passion; perfect calm or happiness, highest bliss.

한문경전에서는 涅槃, 涅槃那, 泥洹이라고 음사하며, 滅, 寂滅, 滅度, 圓寂, 無爲, 無生, 無作 등이라고 번역한다.

탐욕·성냄·어리석음의 三毒을 소멸하여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를 체득한 경지를 말한다.

의 훌륭한 소리²⁾를 내어서 허공을 다 통하여도 그치지 아니하며, 아주 고요하기 때문에 열 가지의 모습³⁾을 떨쳐버려서 眞際⁴⁾와 합쳐 담연하다. 지극히 멀기 때문에 가르침을 따라서 그 쪽으로 가면 1000칼빠kalpa⁵⁾나 되는 긴 세월이 지나도 이르지 못하고, 지극히 가깝기 때문에 말을 버리고 그것을 찾으면 한 생각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스스로 알게 된다.

이제 이 經은, 곧 佛法의 큰 바다이며, 方等⁶⁾의 秘藏이어서, 그 가르침을 헤아려 알기 어렵다. 그것은 너무나 넓고 넓어서 가이 없으며, 너무나 깊고 깊어서 밑바닥을 모르기 때문이다. 밑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다하지 않음이 없고, 가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모든 經典들의 部分을 統合한다. <그렇게 하여> 온

2 八音 : 부처님의 음성에 여덟 가지의 훌륭한 특질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① 極好音 :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도로 끌려들게 하는 미묘한 음성.

② 柔軟音 : 부드럽고 친절한 음성.

③ 和適音 : 조화가 있는 상냥하고 우아한 음성.

④ 尊慧音 :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체득하게 하는 음성.

⑤ 不女音 : 남성적으로 畏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음성.

⑥ 不誤音 :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품게 하는 틀림이 없는 음성.

⑦ 深遠音 : 심원한 도리를 깨닫게 하는 음성.

⑧ 不竭音 :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명료한 음성.

3 十相=十界=十法界=十法界相 : 미혹과 깨달음의 세계를 열 가지로 나누어 놓은 모습. 地獄界・餓鬼界・畜生界・阿修羅界・人間界・天上界・聲聞界・緣覺界・菩薩界・佛界. 지옥계로부터 천상계까지의 여섯 개의 세계는 범부가 방황하는 미혹의 세계이며, 그 나머지의 네 개의 세계는 聖者の 안온한 깨달음의 세계이다. 六凡四聖이라고도 한다.

4 眞際=實際=眞實際 : 際는 究竟을 의미하며, 진리의 경지, 절대적인 경지를 가리킨다.

5 kalpa : 한문경전에서는 劫波라고 음사하며, 줄여서 劫이라고 한다. 分別時分・分別時節・長時・大時라고 번역하며, 오랜 세월을 의미한다.

6 方等=方廣 vaipulya : 毘佛略이라고 음사하며, 대단히 增廣・發展되었다는 의미로 대승을 가리킨다.

갖 흐름을 한 맛(一味)으로 귀납시켜서 부처님이 지닌 뜻을 지극히 공정하게 전개하여 모든 사상가들(百家)⁷⁾의 서로 다른 諍論을 和合시킨다.

드디어는 아주 시끄러운 四生⁸⁾들로 하여금 모두 '둘이 아닌 참된 性品'으로 돌아오게 하며, 꿈만 꾸는 긴 잠에서 <깨어나> 다 함께 '큰 깨달음의 極果'⁹⁾에 이르게 한다. '極果의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性品을 체험하면서도 <체험한다는> 마음조차 깨뜨려버리는 것이요, '참된 성품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混融하여 하나로 되는 것이다. 벌써 <진실과 거짓이 혼용하여 하나로 되어> 둘이 아니라고 하니, 어찌 '하나'인들 있을 수 있으며, 진실과 거짓이 혼용하여 <하나로 되니> 무엇을 '그 참된 성품'이라 하겠는가?

이것은 理¹⁰⁾와 智¹¹⁾에 相即하여 名稱¹²⁾과 意義¹³⁾를 모두 꿰었으므로, 이와 같이 꿰은 것, 이것을 '니르와아나nirvāṇa'의 현묘한 종지라고 이른다. 다만 모든 부처님은 이 <니르와아나nirvāṇa의 현묘한 종지를> 깨달아서 安住하지 아니하며, 응하지 않는 데가 없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nirvāṇa의 지극한 가르침이라

7 百家 : 모든 사상가·종교가를 가리킨다. 중국의 先秦時代의 모든 학설을 통칭하는 제자백가에서 유래한다.

8 四生 : 생물이 태어나는 형식에 따라서 분류한 것으로, 胎生·卵生·濕生·化生을 가리킨다.

9 極果 : 최상의 깨달음.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果位를 말하며, 소승에서는 arhan과를 말한다.

10 理 yoga, yukti, yukta : 이치, 條理. 사실을 사실이게 하는 이유, 事의 반대. 진리, 근본도리,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

11 智 jñāna(Pali: ñāṇa) : 이해, 지식, 깨달음, 완전히 아는 것. 근본지와 무분별지를 통하여 모든 人과 法의 의의를 분별하는 능력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12 名 nāman : 명칭.

13 義 artha : 의의

고 이른다. '현묘한 종지'를 이루었으면서도 아직 고요하지 아니 하며, '지극한 가르침'을 말씀하였으면서도 아직 말씀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理法과 敎法의 한 맛(一味)이라고 이른다.

이와 같이 모든 가르침(滿字)¹⁴⁾을 들은 이는 모두 다 털구멍이 <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며, 半句의 偈頌¹⁵⁾만을

14 『妙法蓮華經文句』

“七約諸經者。華嚴論敎但是滿字。論時但是乳。論法是一自行一化他。若對人但是菩薩。二乘聲聞生身菩薩亦未能發自行之權隨之實。若依今經文。未曾向人說如此事。約三藏者。若論敎唯是半字。若論法是一種化他。若論時即是酪。若依今文。住入門外。著弊垢衣。執除糞器。二乘人耳。約方等敎。若論敎對半論滿。若論時並酪明蘇。若論法有三種化他一種自行。若依今文。心相體信入出無難。約般若。若論敎帶半論滿。若依時挾生而熟。若依法則有二種化他一種自行。”(『大正藏』34-39c)

15 『大般涅槃經』

“諸行無常。是生滅法。生滅滅已。寂滅爲樂。”(『大正藏』12-692a~693a)

이것을 無常偈=雪山童子이야기=雪山半偈=雪山八字偈=捨身偈라고 한다. Āgama경전에 있는 『大般涅槃經』(『大正藏』1-204c)에서는, '無常偈'는 제석천이 부처의 입멸을 애도하여 제창한 계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한편 대승경전에 있는 『大般涅槃經』(『大正藏』12-692a~693a)에서는, '無常偈'는 Bodhisattva시대의 부처의 수행하는 자세를 시험하기 위한 계송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大般涅槃經』(『大正藏』12-692a~693a)에 있는 '雪山童子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부처가 전생의 Bodhisattva시대에 Brāhmaṇa仙人이 되어 雪山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것을 雪山童子라고 한다. 부처가 없는 시대이었으므로 부처의 설법이나 경전을 구하여도 구할 수 없는 때이다.

그 때, 제석천은 이 청년이 身命을 버릴 각오로 법을 구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무서운 Rakṣasa(羅刹)로 모습을 바꾸었다. 청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無常偈의 前半(諸行無常。是生滅法)을 제창하였다. 미묘한 음성으로 이제까지 들은 일이 없는 거룩한 偈頌이 들렸기 때문에, 청년은 어디서 누가 제창하였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면을 두리번거렸다.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한 Rakṣasa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청년은 무서움도 잊어버리고 Rakṣasa 가까이 가서, 지금 제창한 거룩한 절반의 偈頌은 당신이 말했느냐? 나는 처음으로 이것을 들었는데, 바로 이 가

구하는 이는 骨髓가 부서짐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五逆罪¹⁶⁾를 지은이가 이 경을 믿으면 틀림없이 <五逆罪를> 없애게 될 것이며, ‘善根을 끊어 버린 icchantika’는 이 경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이것을 되살아나게 할 것이다.

‘大般涅槃’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그것을 India의 발음으로 모두 갖추어 보면, 마땅히 ‘maha¹⁷⁾ - pari - nirvāṇa’¹⁸⁾라고 한다. 이 나라

르침을 듣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다. 만일 無常偈의 後半을 알고 있으면, 부디 꼭 들려다오,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간청하였다.

Rakṣasa는, 자신은 사람의 따뜻한 피와 살을 음식으로 삼고 있는데, 오랫동안 굶주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만일 나의 피와 살을 네가 좋다면 바칠 터이니, 부디 꼭 後半을 들려주오. 그래서 Rakṣasa는 無常偈의 後半(生滅爲已, 寂滅爲樂)을 제창한다. 이것을 들은 청년은, 대단히 크게 기뻐하면서, 이 무상계를 자신의 사후에 남기고 싶어, 부근에 있는 돌·벽·나무·도로에 이것을 서사하고 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땅으로 뛰어내려, Rakṣasa에게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그 몸은 공중에서 살며시 안겨지고, Rakṣasa는 제석천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청년에게 예배하였다. 그는 身命을 아끼지 않는 참된 Bodhisattva라고 찬탄하고, 청년을 시험한 죄를 참회하면서, 당신은 장래에 틀림없이 성불하여 세상 사람을 구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16 逆罪=五逆罪=五逆重罪=五無間業 pañcānantariyāni : 다섯 가지의 중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무거운 죄.

① 어머니를 살해한 죄.

② 아버지를 살해한 죄.

③ 아르한(arhan)을 살해한 죄.

④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입혀 피가 흐르게 한 죄.

⑤ 교단의 화합·일치를 파괴하고 분열시킨 죄.

17 SED p.794a

√mah to elate, gladden, exalt, arouse; to magnify, esteem highly, honour; to delight.

mahā=mahat great(in space, time, quantity or degree), large, big, huge, ample, extensive, long, abundant, numerout, considerable, important, high, eminent.

에서는 이것을 번역하여 ‘大滅度’라고 한다. 如來가 깨달은 바의 道를 증명하려고 하면, 體¹⁹⁾는 곁이 없는 데까지 두루 미치고, 用²⁰⁾은 유정에까지 두루 미치므로, 널리 포섭하고 멀리 제도하는 데에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뜻을 근거로 하여 ‘大maha’라고 말한다. 大體와 大用은 둘이 아니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벌써 건너야 할 彼岸²¹⁾이 없는데, 어찌 떠나야 할 此岸이 있겠는가? 떠나야 할 것이 없으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大滅’이라고 한다. 건너야 할 것이 없으므로 건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大度’라고 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므로 ‘大滅度’라고 한다.

‘經sūtra’²²⁾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성인의 격언은, 十方을 꿰뚫으면서도 그것은 한 법도이며, 천대를 거치면서도 둘이 아니다. 법다우면서도 언제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이라고 부른다. 본론에

한역경전에서 摩訶라고 음사하며, 大라고 번역한다.

18 SED p.596b

pari - nir√vā to be completely extinguished or emancipated(from individual existence), attain absolute rest; to emancipate completely by causing extinction of all rebirth.

pari - nirvāṇa n. completely extinction of individuality, entire cessation of rebirth.

한문경전에서 般涅槃이라고 음사하며, 부처님의 돌아가심을 의미한다.

19 體 : 그 자체, 주체, 用的 對=ātman: 본체, 실체, 근본적인 것=eka - artha.

20 用 : 작용, 활동=vr̥tti, kṛtya

21 彼岸 : Pali pārimaṇ tīraṃ 강 저쪽 언덕, paryavasāna 理想世界, 理想的의境地, 생사의 고해를 초월한 깨달음의 세계

22 SED p.1241c

√sūtr to string or put together.

sūtra n. a thread, yarn, string; that which like a thread runs through or holds together everything, rule, direction; a short sentence or aphoristic rule. 한역경전에서 經이라고 번역한다.

앞서 서론에 관련된 때의 것을 먼저 논설한다. 그러한 까닭에 ‘序品第一’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大般涅槃經」²³⁾ ‘「序品」第一’이라고 말한다.

述大意者。原夫涅槃之爲道也。無道而無非道。無住而無非住。是知其道至近至遠。證斯道者彌寂彌喧。彌喧之故普震八聲遍[通]虛空而不息。彌寂之故遠離十相同眞際而湛然。由至遠故隨教逝之綿歷千劫而不臻。由至近故忘尋之不過一念而自曾也。今是經者斯乃佛法之大海方等之秘藏。其爲教也難可測量。由良贖[廣]蕩無涯[崖]甚深無底。以無底故無所不窮。以無涯[崖]故無所不該。統衆典之部分歸萬流之一味。開佛意之至公和百家之異諍。遂使擾擾四生僉歸無二之實性。夢夢長睡並到大覺之極果極果之大覺也。體實性而亡[忘]心實性之無二。混眞妄[忘]而爲一。既無二也。何得有一眞妄[忘]混也。孰爲其實。斯卽理智都亡[忘]名義斯絕。是謂涅槃之玄旨也。但以諸佛證而不住[位]。無所不應無所不說。是謂涅槃之至教也。玄旨已而不嘗寂。至教說而未嘗言。是謂理教之一味也。爾乃聽滿字者成蒙毛孔之益。求半偈者不傾骨髓之摧。造逆罪者信是經而能滅斷[惟]善根[種]者依茲教而還生之矣。

所言大般涅槃經者。若其[也]具存西域之音。應謂摩訶般涅槃那。此土譯之言大滅度。欲明如來所證道體周無外。用遍有情廣包[苞]遠濟。莫是爲先。依莫先義。故名爲大。[大]體大用無二無別。既無彼岸[崖]可到。何有此岸[崖]可離。無所離故無所不離乃爲大滅。無所到故無所不到方是大度。以是義故名大滅度。所言經者。大聖格言貫十方而一揆。歷千代而莫二。法而且常故名爲經。正說之前先序時事。以之故言序品第一。故道[導]大般涅槃經序品第一。

23 여기서 말하는 「大般涅槃經」은 「南本」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六卷泥洹經」과 「三十六卷大般涅槃經(=南本)」에는 「序品」이 들어 있으나 「四十卷涅槃經(=北本)」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효의 「涅槃宗要」는 「南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임을 알 수 있다.

제이 分析的 展開

분석적 전개를 하려는 가운데 네 가지 부분이 있다.

첫째는 「大般涅槃經」을 말씀하게 된 因緣을 論說하며, 둘째는 「大般涅槃經」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의 宗旨을 辨明하고, 셋째는 「大般涅槃經」의 체상을 드러내며, 넷째는 「大般涅槃經」의 교판인 教迹을 論辯한다.

二者廣開之內有其四門。初說因緣。次明教宗。三出經體。四辨教迹。

제일단 「大般涅槃經」을 말씀하게 된 因緣을 論說한다

물음 : 부처님이 nirvāṇa에 들려고 할 때에 이 경을 말씀하였다. 그런데 <이 경을 말씀하게 된> 因緣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만일 인연이 없었다면 마땅히 <이 경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며, 인연이 있었다면 몇 가지가 있었을까?

第一說經因緣門者。問佛臨涅槃而說是經。爲有因緣爲無因緣。若無因緣亦應無說。若有因緣爲有(有爲)幾種。

제일장 因緣이 없다는 학설

대답 : 부처님은 이 경을 말씀할 때에 <그럴만한> 원인도 없었으며, <그럴만한> 조건도 없었다. 그러한 까닭은, 말씀한 취지가 명언을 초월해서 인연을 <일부러>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을> 말씀한 부처님은 모든 분별을 여의어서 <그러한> 인연을 생각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인연이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 경을 말씀한 것이다. 이 『大般涅槃經』의 다음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taila를 먹는 기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는 기름이 아니며,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 먹는 기름이라고 한다.”²⁴⁾

『大般涅槃經』도 역시 그와 같아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또 <Paramārtha가 번역한> 『攝大乘論釋』에서 말한다.

“만일 부처님이라는 과보, 이것이 무분별지²⁵⁾의 나타남이라면, 중생들을 분별하는 일을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는데, 理致와 똑같으면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용이 없이 일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듭하여 계송을 말한다. 예를 들면 maṇi²⁶⁾와 천고는 생각이 없이 스스로의 일을 한다. 이와 같이 <아무런> 분별도 없이 여러 가지 부처님의 일을 한다.”²⁷⁾

이들을 해석할 때, <대반열반경과 십대승론석>의 뜻에 따르면,

24 『大般涅槃經』

“如坻羅婆夷名爲食油。實不食油。強爲立名。名爲食油。”(『大正藏』12-747b)

25 無分別智nirvikalpa - jñāna : 주관과 객관의 상을 벗어나서 평등하게 작용하는 진실한 지혜. 식별·변별하기 이전의 지혜.

26 maṇi : 한역경전에서는 摩尼라고 음사하며, 珠·寶·離垢·如意라고 번역한다. 珠玉의 총칭이다.

27 『攝大乘論釋』

“若佛果是無分別智所顯離分別衆生。云何得作衆生利益事，如理不倒，爲顯無功用事。故重說偈，譬摩尼天鼓。無思成自事。如此不分別，種種佛事成。”

(『大正藏』31-243a)

인연이 없으면서 말씀한 것이 있다고 <할 수도 있으며>, 또 인연이 없으므로 역시 말씀한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 『大般涅槃經』의 다음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만일 여래가 언제나 법을 말씀하지 않는 것을 알면, 이것은 bodhisattva²⁸⁾가 다문을 구족한 것이라고 부른다.”²⁹⁾

또 『二夜經』에서 말씀한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도를 깨달은 밤으로부터 nirvāṇa에 드는 밤에 이르기 까지, 이 두 밤사이에 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다.”³⁰⁾

28 SED p.733

√budh to wake, wake up, be awake; to perceive, notice, understand; to have an insight into.

bodhi mf. (with Buddhists or Jainas) perfect knowledge or wisdom (by which a man becomes a Buddha or Jina), the illuminated or enlightened intellect (of a Buddha or Jaina).

sattva mn. a living or sentient being, creature, animal; existence.

bodhisattva m. one whose essence is perfect knowledge, one who is on the way to the attainment of perfect knowledge (i.e. a Buddhist Saint when He has only one birth to undergo before obtaining the state of a supreme Buddha and then Nirvāṇa).

한문경전에서는 菩提薩埵라고 음사하며, 이것을 줄여서 菩薩이라고 한다. 求法者 또는 求道者라는 의미이다.

29 『大般涅槃經』

“若知如來常不說法。亦名菩薩具足多聞。”(『大正藏』12-764c)

30 『大智度論』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음을 알려준다.

“又佛二夜經中說。佛從得道夜。至般涅槃夜。是夜中間所說經數。一切皆實不顛倒。”(『大正藏』25-59c)

위의 『大智度論』에 실려 있는 글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첫째, ‘佛二夜經中說’의 ‘二夜經’을 경전의 이름으로 보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이 논증으로써 인연도 없으며, 말씀하신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答佛說是經無因無緣。所以然者。所說之旨絕於名言不開因緣故。能說之人離諸分別不思因緣故。無因強說是經。如此下文言。如坻〈拉〉羅婆夷名為食油。實不食油。強為立名。字為食油。是大涅槃亦復如是。無有因緣強立名字。又攝論云。若佛果是無分別智所顯。離分別衆生。云何得作衆生利益事如理無倒。為顯無功用作事。故重說偈言。譬摩尼天鼓無思成自事。如是不分別種種佛事成。

解云。若依是義無因緣而有所說。又復得言無因緣故亦無所說。如是經下文言。若知如來常不說法。是名菩薩具足多聞。二夜經云。從初得道夜乃至涅槃夜。是二夜中間。不說一言字。以是證知無因無說。

“또한 부처님은 『二夜經』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도를 깨달은 밤으로부터 Pari-nirvāṇa에 드는 밤에 이르기까지, 이 밤의 중간에 말씀하신 경 둘째, 그러나 ‘佛二夜經中說’의 ‘經’을 動詞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부처님은 두 밤을 거치는 가운데에 말씀하셨느니라. 부처님은 도를 깨달은 밤으로부터 Pari-nirvāṇa에 드는 밤에 이르기까지, 이 밤의 중간에 말씀하신 경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진실하여 전도되는 것이 아니다.”

첫째 경우에는 원효가 재세할 때는 『二夜經』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둘째의 경우에는 ‘二夜經’이라는 경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大智度論』에서는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효는 자신의 意圖를 펴기 위하여否定的으로 활용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楞伽阿跋多羅寶經』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글이 실려있음을 알려준다.

“我從某夜得最正覺。乃至某夜入般涅槃。於其中間。乃至不說一字。亦不已說當說。不說是佛說。

나는 어느 날 밤에 최고의 정각을 얻고 나서부터 내지 어느 날 밤에 Pari-nirvāṇa에 들기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는 한 글자도 말씀하지 않았느니라. 또 벌써 말씀하지 않았으며, 당래에도 말씀하지 않을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니라.” (『大正藏』 16-498c)

제이장 因緣이 있다는 학설

어떤 스승은, 큰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은 이 경을 말씀하였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도무지 인연이 없으므로 일을 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아 깊은 까닭이 있으므로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 『大智度論』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Sumeru산왕³¹⁾은 인연이 없거나 인연이 작으면 스스로 동작하지 않는 것과 같다.”³²⁾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으므로 인연이 없이는 <경을> 말씀하지 않는다. 이 글의 뜻을 근거로 하여 보면 인연이 있으므로 말씀한 것이 된다. 만일 이 뜻을 근거로 하여 보면, 이 경을 말씀한 인연에는, 총체적인 것이 있고 개별적인 것이 있다. 개별적으로 이것을 논술하면, 인연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왜 그런가 하면, 위대한 사람이 발언을 할 때에는 부질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계승·한 구절에도 각각 인연이 있으며, 한 말씀 속에도 또한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 이 경의 Sanskrit본에는 2만5천의 계승이 있으므로, 이것은

31 Sumeru : 한문경전에서는 須彌山이라고 음사하며, 妙高·妙光·安明·善積 등으로 번역한다. 불교의 우주관에 의하면 四洲世界의 중앙에 우뚝 솟은 가장 높은 산을 말한다. 큰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金輪의 위에 있고, 그 높이는 수면에서 8만yojana이며, 그 둘레에는 9山·8海가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 이 산의 주위를 해와 달이 돌며, 이 산의 중턱에는 東方에 持國天·南方에 增長天·西方에 廣目天·北方에 多聞天의 四天王이 있고, 이 산의 꼭대기에는 Trāyastriṃsat(忉利天, Pali. Tāvātimsa)의 하느님인 Śakra devānam indra(=帝釋하느님, Pali. Sakka devānam Indra)가 사는 喜見城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喜見城에 살고 있는 Śakra devānam indra를 Sumeru산왕이라고 한다.

32 『大智度論』

“譬如須彌山王不以無事及小因緣而動。”(『大正藏』25-57c)

곧 2만5천의 인연이 있으며, 그 한 계송마다 네 구절이 있으므로 이는 곧 10만의 구절이 된다. 이와 같이 인연을 허락하면 또 하나 하나의 구절에 각각 모두 인연이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말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이 있다. 개별적인 인연은 이와 같으므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총체적인 인연으로 <이것을 논술하면>, 여래는 마땅히 커다란 인연이 있으므로 이 경을 말씀하였다. 말하자면 모든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한 큰 뜻을 나타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妙法蓮華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한 가지 커다란 일을 하겠다는 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였다…….”³³⁾

또 이 경의 「菩薩品」 제16에서 말씀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공양하면, 물림없이 곧 『大般涅槃經』을 듣게 될 것이며, 박복한 사람은 들을 수 없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큰 공덕을 쌓은 사람이라야 이와 같이 큰 것을 들을 수 있으며, 하열한 범부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크다고 하는가? 모든 부처님의 아주 깊이 비장한 여래의 성품을 말함이니, 이런 뜻으로 큰 일이라 한다.”³⁴⁾

或有說者。有大因緣佛說是經。所以然者。如愚癡人都無因緣無有(有無)所作。

33 『妙法蓮華經』

“諸佛世尊。唯以一大事因緣。故出現於世。”(『大正藏』9-7a)

34 『大般涅槃經』

“若有人能供養恭敬無量諸佛。方乃得聞大般涅槃經。薄福之人則不得聞。所以者何。大德之人乃能得聞如是大事。凡夫下劣則不得聞。何等爲大。所謂諸佛甚深秘藏如來性是。以是義故名爲大事。”(『大正藏』12-658c)

智者不爾。有深所以乃有所作。如智度論云。譬如須彌山王不以無因緣乃小因緣而自動作。諸佛亦爾。不無因緣而有所說。依是文意有因有說。若依是意說此經。因有總有別。

別而論之。因緣無量。所以然者。大人發言必不徒說。一偈一句各有因緣。一言之內亦有衆緣。此經梵本有二萬五千偈則有二萬五千因緣。隨其一偈皆有四句。則十萬句。有爾許因緣。又一一句各有諸緣。由是言之有無量緣。別緣如是不可具陳。

總因緣者。如來宜以大因緣而說是經。所謂欲顯諸佛出世之大意故。如法花經言。諸佛如來唯以一〈大〉事因緣故出現於世乃至廣說。又此經菩薩品云。若有人能供養恭敬無量諸佛。方乃得聞大涅槃經。所以者何。大德之人乃能得聞如是大事。何等爲大。所謂諸佛甚深秘藏如來之性。以是義故。名爲大事。

이들을 해석하여 말하겠다. 이제 이 경을 말할 때는, <부처님이> 바로 일생의 교화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으며, 마침내 모든 부처의 큰 뜻을 나타내 보이려는 참이었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성도한 다음부터 <중생의> 根機³⁵⁾를 따라 말سم한 모든 언교를 총괄하여, 모두 일미 평등한 道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둘이 아닌 성품으로 귀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十方三世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이 뜻과 같으므로 둘이 아니며 차별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뜻이라고 하며, 여래가 매우 깊이 간직한 비장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하나의 커다란 인연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여래는 이 『大般涅槃經』을 말سم하였다.

이와 같이 이 총체문에서 말하는 하나의 큰 인연은 곧 개별문에서 말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을 포섭한다. <그것은 개별문의> 여러 인연이 <총체문의> 하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35 根機indriya : 機根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종교적 소질·활력·능력을 말한다.

이다.

解云. 今說是經之時正臨一化之終日. 究竟(意)顯示諸佛大意. 所謂總括成道以來隨機所說一切言教. 悉爲示一味之道. 普令(今)歸趣無二之性. 十方
 [三] 世一切諸佛悉同是意. 無二無別. 是謂諸佛出世大意. 是名如來甚深秘藏. 由有如是第一大因緣. 是故如來說是大經. 如是總門一大因緣卽攝別門無量因緣. 以其衆緣不出一意.

물음 : 저 먼저 스승은 <이 경을 말씀할> 인연이 없었으므로 말씀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 뒤의 스승은 <이 경을 말씀할> 인연이 있었으므로 말씀한 것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두 학설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하겠는가?

대답 : 어떤 스승은 말하기를 두 학설이 모두 옳다고 한다. 그것은 모두 경전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서로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상대방의 주장이> 그렇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을 말씀할 인연이> 있던가 없던가 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주장이> 결코 그런 것도 아니므로, <두 학설이> 서로 틀리는 것이 아니다. 이 경을 말씀한 인연이 마땅히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問彼初師義無因無說. 此後師意有因有說. 如是二說何得何失. 或有說者. 二說悉得. 皆依經典不相妨故. 雖非不然故說有無《無》而非定然故不相違. 說經因緣應如是知.

제이단 『大般涅槃經』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의 宗旨를 究明한다

제일장 總體的 究明

이 경의 종지에 대하여는 말하는 사람마다 그 주장이 같지 않다.

第二辯教宗者。此經宗旨說者不同。

제일절 서른 여섯 가지의 뜻을 종지로 삼는다

어떤 스승은, 이 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詮表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이 경의 宗旨로 삼는다고 말한다. <그는> 질문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곧 6×6=36의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른 바 제일의 長壽의 因果로부터 최후의 모든 陰skandha(=蘊)³⁶에 관한 法門에 이르기까지라고 한다.

有師說言。經文始終所詮業義以爲經宗。對問而言。卽有六六三十六義。所謂第一長壽因果乃至最後諸陰法門。

제이절 네 가지의 큰 뜻을 종지로 삼는다

어떤 스승은, 네 가지의 큰 뜻을 이 경의 종지로 삼는다고 말한다. 네 가지란 무엇들인가? 첫째, 대열반이라고 하는 원만하고 지극한 妙果는 <dharmakāya法身³⁷·prajñā般若³⁸·mokṣa解脫³⁹의> 三事

36 陰skandha : 신역에서는 蘊이라고 번역하며, 쌓아올려 모은 것을 의미한다.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

37 dharma - śāstra=dharmakāya 法身·法佛·法身佛·自性身·法性身·寶佛.

설일체유부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 또는 十力 등의 공덕법을 법신이라고 한다. 대승에서는 究極·절대의 존재를 법신이라고 하며, 모든 존재는 그의 현현이라고 말한다. 진리를 신체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진리 그 자체, 영원한 이법으로서의 부처님.

와 <nitya常·sukha樂·ātman我·śubha淨⁴⁰⁾>의 四德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둘째, 모든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마음자리(=佛性)'⁴¹⁾

pra-√jñā to know, understand(esp. a way or mode of action), discern, distinguish, be acquainted with.

prajñā f. wisdom, intelligence, knowledge, distinction; (with Buddhists) true or transcendental wisdom. 한역경전에서 般若라고 음사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 또는 깨달음을 얻은 지혜라는 의미이다.

39 SED p.834c

√mokṣ to wish to free one's self, seek deliverance; to free one's self from.

mokṣa m. emancipation, liberation, release from worldly existence or transmigration, final or eternal emancipation. 한문경전에서 해탈이라고 번역한다.

- 40 常·樂·我·淨 :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방법으로 四念處(=四念住=四念處觀)를 닦았다. 관 身은 不淨하며, 受는 苦이고, 心은 無常이며, 法은 無我라고 觀想하였다. 여기서 不淨·苦·無常·無我是 正義로써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常·樂·我·淨을 주장하는 견해는 전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경에서는 법신은 常主·不滅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常'을 인정하면 '我'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관 내재하는 佛性은 眞我·大我라고도 말하기 때문이다. '常'이면서 '我'인 것을 소유한 법은 不淨이 아니며 '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안주하는 경지는 '苦'가 아니라 '樂'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常·樂·我·淨을 주장하는 이론은 과거의 無常·苦·無我·不淨을 주장하는 소승불교의 소극적인 입장보다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41 佛性(=buddha-dhātu·buddhata·buddhatva) :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大乘佛敎에서는 이것이 모든 인간 또는 存在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大般涅槃經』에서는 모든 중생이 佛性を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섯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부처님의 마음자리'라고 번역한다.

① 가난한 여인의 집의 땅속에 眞金藏이 묻혀 있다.

가난한 여인의 집안에 眞金藏이 묻혀 있어도 그녀는 그것을 모른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파내어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인은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 중생에게 佛性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이 번뇌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중생은 그것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고, 이제 여래에 의하여 그것이 開示된다고 하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가난한 여인이란 해아릴 수 없이 많은 一切의 중생을 가리키며, 眞金藏이란 佛性を 지시하는 것이다.(『大正藏』12-648b)

② 쓰디쓴 약을 어머니의 젖에 바르다.

어떤 여인이 아기를 하나 키우는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아기의 어머니는 의사에게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왔다. 의사는, 수 cheese·乳 milk·石蜜 honey의 세 가지를 섞어 약을 지어 주면서, 이 약이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는 젖을 주지 말도록 설명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방편으로서, 젖꼭지에 독을 발랐기 때문에 빨아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약이 모두 소화가 된 것을 보고서, 어머니는 젖 몸을 깨끗이 씻고, 아이에게 '이리 와! 이리 와! 젖을 줄 테니까.'라고 불렀지만, 그 아이는 아까 毒氣에 관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피하였다. 어머니는 약을 먹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아이는 그 까닭을 알고서 점차로 젖을 먹기 시작했다. 여래도, 一切를 제도하기 위하여 世俗의 법에 대하여 無我的 법을 수행할 것을 가르쳐, 世間出過의 법을 말씀했다. 부처는 이렇게 해서 수행인의 空을 실천함에 의하여 마침내 여래장을 말씀한다고 하는 가르침이다.(『大正藏』 12-648b)

③ 力士의 眉間에 金剛珠가 박히다.

이 力士는 미간에 금강주가 있었는데, 다른 力士와 씨름을 하다가 서로 머리를 부딪쳤기 때문에, 그 이마에 있던 구슬이 피부 속으로 함몰하여 버렸다. 力士는 스스로는 그 구슬의 행방을 모르고, 그 곳에 부스럼이 났기 때문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다. 의사는 너의 이마에 있던 구슬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자기 자신은 그 구슬의 행방을 모르고 있던 力士는, 내 이마의 구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幻化했을까라고 탄식하면서 울었다. 그 때 의사는 力士를 달래면서 그렇게 몹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했다. 네가 씨름을 할 때 분노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 때 구슬은 살 속으로 함몰하여 버리고 스스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力士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의사는 거울을 가져다 보여주면서 함몰한 구슬을 비쳐 확인시켰다. 구슬이 똑똑하게 현현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奇特한 상념이 떠올랐다. 一切衆生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지식에게 친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佛性이 있어도 볼 수가 없다. 더더구나 貪·瞋·癡 三毒에 휩싸여서, 여러 종류의 가계에 태어나 二十五有를 받아 불성이 있는 것을 모른다. 무아를 닮아도 참된 무아를 모르며, 더구나 有我를 모른다. 여래는, 일체는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중생은 무량한 번뇌에 뒤덮여 있어서 불성이 있는 것을 모른다. 만일 번뇌를 소멸시켜 버리면 불성을 證知하는 것은 了了하다고 교시하고 있다.(『大正藏』 12-649a)

④ 雪山에 一味의 약이 있다.

그 약을 樂味라고 부르며, 그 맛은 대단히 달다. 깊은 숲 속에 있으므로 사람은 향기

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번뇌에 뒤덮이어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三寶와 '부처님의 마음자리(=佛性)는 동체이므로 둘이 아니다. 넷째, 佛法을 비방하는 icchantika⁴²)나 성품에 집착하는 二乘⁴³)까지도 모두 장래에 부처가 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뜻을 가지고 그 종지로 삼는다.

에 의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아주 옛날에 轉輪聖王이 있었는데 설산에 있는 이 약을 구하기 위하여 木筒을 만들었다. 이 약이 성숙할 때는 땅으로부터 유출하여 木筒에 모이는 것이다. 그 맛은 眞正이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약의 맛이 그 流處에 따라서, 시기도(酢)·짜기도(鹹)·달기도(甘)·쓰기도(苦)·매기도(辛)·싱겁기도(淡) 하여 여러 가지 맛으로 나뉘어졌다. 이와 같이 일미가 그 流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맛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약의 진미는 산에 머물러 있어 마치 보름달 같았다. 박덕한 사람들이 약을 얻으려고 공을 들여 땅을 파도 얻지 못하더니, 다른 전륜성왕이 세상에 나와 그의 福力の 인연으로 약의 진정한 맛을 얻었다. 이와 같이 여래가 말하는 秘藏佛性の 맛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숲 속에 묻혀 있으므로 무명이 두터운 중생이 맛이 좋은 약을 보지 못한다. 일미란 불성이며 번뇌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내는데, 드디어 인연을 얻어서 본래의 제 맛인 일미를 얻는다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다.(『大正藏』 12-649b)

⑤ 날카로운 쟁이로 땅을 파서 금강에 다다른다.

어떤 사람이 땅 속에 있는 보물이 큰 독을 잘 알고 쟁이로 땅을 파는데 모래·자갈·반석은 무난하게 파 내려갈 수 있었지만, 금강에 이르면 뚫을 수 없다. 금강은 창이나 쟁이로 깨뜨릴 수 없다.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누구도 깨뜨릴 수 없으며, 중생의 五蘊은 만들어진 것이니, 만들어진 것은 모래나 돌과 같아서 뚫을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지만 佛性인 眞我는 금강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다.(『大正藏』 12-649c)

42 icchantika : 一闍提라고 음사하며, 斷善根 또는 信不具足 등으로 번역한다.

43 二乘 yāna - dvaya : 성문승과 연각승을 말한다. yāna는 수레라는 뜻이며, 한역경전에서는 乘이라고 번역한다. 성문승이란, 스승의 가르침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四聖諦의 도리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 또는 그와 같은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연각승이란, 이법을 체득하여 스스로 깨닫는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지 않고 홀로 12인연의 도리를 관찰하여 깨닫는 사람, 또는 그와 같은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或有說者。四種大義。爲此經宗。何等爲四。一者大涅槃圓極妙果具足三事及與四德。二者一切衆生悉有佛性。煩惱覆故不能見。三者三寶佛性同體無二。四者闡提謗法。執性二乘 悉當作佛。如是四義以爲其宗。

제삼절 出世間の 因果를 종지로 삼는다

어떤 스승은, 출세간(44)의 因果를 가지고 그 종지로 삼는다라고 말한다. 果報은 곧 bodhi와 nirvāṇa를 말하며, 原因은 곧 '부처님의 마음자리(=佛性)와 성스러운 행위를 말한다. 이 경의 「Cunda품」 제2에서는 bodhi라는 과보를 전개하며, 「哀歎品」 제3에서는 nirvāṇa라는 과보를 전개하고, 「如來性品」 제12에서는 '부처님의 마음자리(=佛性)'라는 原因을 나타내며, 「聖行品」 제19에서는 行德이라는 원인을 말씀하고, 그 나머지의 모든 품에서도 거듭하여 원인과 과보를 드러내 보인다. 그러므로 <이 경은> 無上의 因果를 종지로 삼는다.

或有說者。出世因果以其爲宗。果卽菩提涅槃。因卽佛性聖行。如純(能)陀章開菩提果。哀歎章中開涅槃果。如來性品顯佛性因。聖行品中說行德因。其餘諸品重顯因果。故知無上因果爲宗。

제사절 當來의 常德과 現在의 常德을 종지로 삼는다

어떤 스승은, <이 경은> 當來의 常德과 現在의 常德의 두 果報를 종지로 삼는다라고 말한다. 이른바 모든 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마음자리(=佛性)'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當來의 常德을 나타낸 것

44 出世間loka - uttara : '世'는 遷流한다는 뜻으로 시간성을 말하며, '간'은 간격이라는 뜻으로 공간성을 말한다. 곧 생성·소멸하는 변화의 세계를 세간이라고 한다. 출세간이란 이와 같은 생성·소멸하는 변화의 세계에서 벗어난 세계를 말한다. 삼계의 번뇌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간 세계.

이며, 여래가 깨달은 mahā - pari - nirvāṇa는 現在의 常德을 밝혀 말한 것이다. 聖行 등의 원인은 곧 <當來의 常德과 現在의 常德의> 과보를 도와서 드러내지만, 純正한 종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처님의 뜻에 근거하여 보면,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當來의 常德의 과보를 깨닫게 하고 싶지만, 다만 <當來의 常德의 과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분히 <중생이> 믿음을 얻기 어려울까 하여, 이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mahā - pari - nirvāṇa의 現在의 常德을> 말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믿음을 이루어 보려고 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기 때문에 <當來의 常德과 現在의 常德의> 두 과보를 종지로 삼는다. 다만 여기서는 <現在의 常德인 mahā - pari - nirvāṇa를> 쫓아 <이 경의>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nirvāṇa라고 말한다.

或有說者。當常現常二果爲宗。所謂一切衆生悉有佛性。是顯當常如來所證大般涅槃。是明顯常聖行等因卽助顯於果非爲正宗。若據佛意欲使衆生各證當果。但當果未非恐難取信。是故自說所證將成物信。以是義故二果爲宗。但從現立顯故名涅槃也。

제오절 원만하고 지극한 일과를 종지로 삼는다

어떤 스승은, 원만하고 지극한 一果를 이 경의 종지로 삼는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이 원만하고 지극한 一果는> 모두 부처님의 mahā - pari - nirvāṇa이다. 그러므로 이 종지를 따라서 <이 경의> 제목을 붙였는데, 『瓔珞經』은 여섯 가지의 영락을 종지로 삼고, 『mahā - prajñā - sūtra대반야경』은 세 가지 빠라가야⁴⁵⁾를 종지로 삼는다. 그러니 마땅히 이 『大般涅槃經』은 하나의 mahā - pari - nirvāṇa를 종지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5 세 가지 빠라가야=三種般若: 文字般若·觀照般若·實相般若를 가리킨다.

或有說者。圓極一果爲是經宗。所謂諸佛大般涅槃。所以從宗而立題名。璽路經六種璽路爲宗。大般若經三種般若爲宗。當知是涅槃經一大涅槃爲宗。

제육절 모든 부처님이 비장한 둘도 없는 실성을 종지로 삼는다

어떤 스승은, 모든 부처님이 秘藏한 둘도 없는 참된 성품을 이 경의 종지로 삼는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實性은 현상을 여의고 본성을 여의었으므로 모든 부문에 있어서 장애가 없다. <그것은> 相(=現象)을 여의었으므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또 因도 아니고 果도 아니며, 또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性(=本性)을 여의었으므로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며, 또 因이기도 하고 果이기도 하며, 또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기 때문에, 衆生이라고도 하며, 生死라고도 하고, 如來라고도 하며, 法身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因도 되고 果도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자리(=佛性)’라고도 하며, 如來藏이라고도 하고, bodhi라고도 하며, mahā - pari - nirvāṇa이라고도 한다. 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眞諦·俗諦라고도 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中道라고도 한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잘 모든 부문에 해당하며,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문이 한 맛이다. 이와 같은 둘도 없는 비장을 이 경의 종지로 삼는다. 다만 그 제목 속에 나란히 모든 이름을 다 둘 수 없으므로, <부처님이 mahā - pari - nirvāṇa하실> 때의 일을 따라서 mahā - pari - nirvāṇa라는 이름을 세우는 것이다.

或有說者。諸佛秘藏無二實性以爲經宗。如是實性離相離性故於諸門無障無礙。離相故不垢不淨非因非果不一不異非有非無。以離性故亦染亦淨爲因爲果亦一

亦異爲有爲無。爲染淨故或名衆生或名生死。亦名如來亦名法身。爲因果故或名佛性名如來藏或名菩提名大涅槃。乃至爲有無故名爲二諦。非有無故名爲中道。由非一故能當諸門。由非異故諸門一味。如是無二祕藏以爲是經宗旨。但其題目之中不能普遍(偏)存諸名。且隨時事立涅槃名。

물음 : 여섯 스승의 학설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진실인가?

대답 : 어떤 스승은, 모든 학설이 두루 진실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뜻은 모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어떤 스승은, 여섯 번째 학설을 진실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래의 모나지 않는 뜻을 아주 잘 얻었으므로, 앞에서 말한 모든 스승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두 스승의 학설(여섯 스승의 학설이 모두 옳다는 설과 여섯 번째 학설이 옳다는 설)이 서로 위배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통틀어 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분별하면 또 두 문에 의거하여 그 실상을 드러낸다. 두 문이란 '涅槃門'과 '佛性門'을 말한다.

問六師所說何者爲實。答或有說者。諸說悉實。佛意無方無不當故。或有說者。後說爲實。能得如來無方意故。普容前說諸師義故。當知是二說亦不相違也。總說雖然。於中分別。且依二門以示其相。謂涅槃門及佛性門。

제이장 分析的 究明

제일절 涅槃門

nirvāṇa의 뜻은 여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논술한다. 첫째는 名義門, 둘째는 體相門, 셋째는 通局門, 넷째는 二滅門, 다섯째는 三事門, 여섯째는 四德門이다.

涅槃之義六門分別. 一名義門. 二體相門. 三通局門. 四二滅門. 五三事門. 六四德門.

제일항 名義門

名義門 안에는 첫째는 이름의 번역, 둘째는 뜻의 해석이 있다.

名義門內翻名釋義.

제일목 이름의 번역

먼저 이름을 번역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동일하지 않다. 어떤 스승은 <nirvāṇa라는 이름을>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或說無翻), 어떤 스승은 번역하여야 한다(或說有翻)고 말한다. 번역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학설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지금 한 가지 뜻을 끌어내어 번역하면 ‘滅度’라고 한다. 그러한 문서의 증거로는 『妙法蓮華經』의 산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여래는 오늘 밤중에 nirupadhiśeṣam nirvāṇa(무여열반)에 들어갈 것이니라.”⁴⁶⁾

또 『妙法蓮華經』에 있는 아래의 偈頌에서 말씀한다.

“부처님이 오늘밤에 멸도하는 것은, 마치 쉼이 다 타서 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니라.”⁴⁷⁾

46 『妙法蓮華經』

“如來於今日中夜當入無餘涅槃”(『大正藏』9-4b)

47 『妙法蓮華經』

“佛此夜滅度 如薪盡火滅”(『大正藏』9-5a)

또 이 『大般涅槃經』 제1권의 「序品」 제1에서 말씀한다.

“그 部類의 음성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널리 외치노라. 오늘 如來·應供·正遍知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안아주며, 중생을 외아들 Rahula처럼 평등하게 보고, 중생을 위하여 귀명할 곳이 되어주며, 세간의 집이 되어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大覺·世尊은 곧 nirvāṇa에 들려고 한다.”⁴⁸⁾

여섯 권으로 된 『佛說大般泥洹經』의 이 곳에 해당하는 글에서 말씀한다.

“아주 고요하고 맑은 寂滅, 大牟尼尊은, 모든 중생들에게 이제 멸도하려고 한다고 이르셨다.”⁴⁹⁾

이들 경의 문장을 근거로 하여 마땅히, ‘滅度’는 바로 ‘nirvāṇa’를 번역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初翻名者諸說不同。或說無翻。或說有翻。有翻之說。雖有諸宗。今出一義。翻爲滅度。其文證者。如法花經長行言。如來於今日中夜。當入〈入當〉無餘涅槃。下偈頌曰。佛此夜滅度。如薪盡火滅。又此大經第一卷云。隨其類音普告衆生。今日如來將欲涅槃。六卷泥洹此處文言。悟懷寂滅。大牟尼尊告諸衆生。今當滅度。以是等文當知滅度正翻涅槃也。

또한 <nirvāṇa를> 번역하여서는 안 된다는 학설에도 여러 가지

48 『大般涅槃經』

“隨其類音普告衆生。今日如來應供正遍知。憐愍衆生覆護衆生。等視衆生如羅眼羅。爲作歸依爲世間舍。大覺世尊將欲涅槃”(『大正藏』12-605a)

49 『佛說大般泥洹經』

“恬淡寂滅人牟尼尊。告諸衆生今當滅度”(『大正藏』12-853a)

주장이 있지만, 다만 한 가지 주장만을 끌어낸다. 그 스승은, 외국어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나라의 말로는 오로지 <그 말에> 상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이름을 하나로 하여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글의 증거로는 『大般涅槃經』의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제22에 있는 제7功德文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涅槃nir은 아니라는 말이며, 槃vāna은 滅이라는 말이니, 不滅이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 槃vāna은 또 覆이라는 말이니, 不覆이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 槃vāna은 또 去來라는 말이니, 不去不來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 槃vāna은 取라는 말이니, 不取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 槃vāna은 不定이라는 말이니, 不亂없이 不定이 아니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 槃vāna은 新故라는 말이니, 新故가 아니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 槃vāna은 障礙라는 말이니, 障礙가 아니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⁵⁰⁾

또 『大般涅槃經』의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제22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槃vāna은 有라는 말이니, 有가 아니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 槃vāna은 和合이라는 말이니, 和合이 아니라는 뜻으로 涅槃nirvāna이라고 말한다. 槃vāna은 苦라는 말이니, 苦가 없다는 뜻으로

50 『大般涅槃經』

“善男子。涅槃者言不。槃者言滅。不滅之義名爲涅槃。槃又言覆槃。不覆之義乃名涅槃。槃言去來。不去不來乃名涅槃。槃者言取。不取之義乃名涅槃。槃言不定。定無不定乃名涅槃。槃言新故。無新故義乃名涅槃。槃言障礙。無障礙義乃名涅槃。” (『大正藏』 12-758c)

涅槃nirvāṇa이라고 말한다.”⁵¹⁾

이 곳에 대략 열 가지 뜻이 나타나 있다. 위아래의 모든 글들은 < 그 뜻이> 아주 많다, 그러므로 말을 하나로 하여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無翻之說. 亦有諸宗. 且出一義. 彼師說言. 外國語容含多名訓. 此土語偏不能相當. 是故不可一名而翻. 其文證者. 如德王品第七功德文言. 涅者不. 槃者滅<識>. 不滅<識>之義名爲涅槃. 槃言覆. 不覆之義乃名涅槃. 槃言去來. 不去不來乃名涅槃. 槃者言取. 不取之義乃名涅槃. 槃者不定. 無不定義乃名涅槃. 槃言新故. 無新故義乃名涅槃. 槃言障礙. 無障礙義乃名涅槃. 又下文言. 善男子. 槃者言有. 無有之義乃名涅槃. 槃者名爲和合. 無和合義乃名涅槃. 槃者言苦. 無苦之義乃名涅槃. 此處略出是十種訓. 上下諸文乃衆多. 故知不可一語而翻.

물음 : 만일 나중 스승(無翻之說)이 세운 뜻을 따르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경에서는 <nirvāṇa를>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번역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그 部類의 음성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널리 외치 노라. 오늘 如來·應供·正遍知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안아 주며, 중생을 외아들 Rāhula처럼 평등하게 보고, 중생을 위하여 귀의할 곳이 되어주며, 세간의 집이 되어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大覺·世尊은 곧 nirvāṇa에 들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어찌 벌·개미 등의 六道衆生の 음성에 따라서 nirvāṇa라는 이름을 번역할 수

51 『大般涅槃經』

“善男子. 槃者言有. 無有之義乃名涅槃. 槃名和合. 無和合義乃名涅槃. 槃者言苦. 無苦之義乃名涅槃.” (『大正藏』12-758c)

있었는데, 홀로 이 나라의 말만은 번역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또 이것에 해당하는 이 경의 글에서는, 이미 이것을 번역하여 말하기를 滅度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번역할 수 있는 것을 번역할 수 없다고 하는가?

대답 : 그 스승(無難之說)은, nirvāṇa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만 한 가지만을 골라서 번역하여 ‘滅度’라 한다고 풀어서 말한다. 그러기에 <멸도라는> 뜻을 근거로 하여 두루 중생들에게 외친 것이지, <nirvāṇa라는> 그 이름이 오직 멸도로만 번역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므로 그 사람의 어려움은 잘 풀린다.

물음 : 만일 먼저 스승(有難之說)이 세운 뜻을 따르면, 이 글은 어떻게 풀 것인가? 『大般涅槃經』의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제22에서 난해하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

“만일 멸도는 nirvāṇa가 아니라면, 왜 여래는 스스로 석 달 뒤에 pari-nirvāṇa에 든다고 하였는가?”⁵²⁾

『大般涅槃經』의 「獅子吼菩薩品」 제23에서 말씀한다.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으므로 멸도라 하며, 각관⁵³⁾을 여의었으므로 nirvāṇa라고 말한다.”⁵⁴⁾

52 『大般涅槃經』

“若使滅度非涅槃者，何故如來自期三月當般涅槃。”(『大正藏』12-757c)

53 覺觀은 vitarka와 vicāra의 구역으로 신역에서는 尋伺라고 번역한다. vitarka(=覺=尋)는 사물의 이치를 추리하여 헤아리는 마음의 거친 작용을 가리키며, vicāra(=觀=伺)는 사물의 이치를 추리하여 헤아리는 마음의 미세한 작용을 가리킨다. 거친 마음과 미세한 마음.

이 글을 가지고 증명하면 멸도는 바르게 nirvāṇa라는 이름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답 : 그 스승(有翻之說)은, 이러한 경문들은,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Sanskrit와 漢文을 서로 들어서 그 문장을 꾸민 것이라라고 풀어서 말한다. 만일 외국어인 <Sanskrit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다면, <위의 경문들에서> 벌써, 만일 nirvāṇa는 nirvāṇa가 아니라면, 또 한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으므로 nirvāṇa라고 하며, 각관을 여의었으므로 nirvāṇa라고 부른다고 말했을 것이다. 만일 이 나라의 말인 <漢文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다면, <위의 경문들에서> 벌써, 만일 멸도는 멸도가 아니라면, 아래의 글의 보기에서도 이와 같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보면 서로 틀리는 것이 아니다.

물음 : 두 스승이 말한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대답 : 어떤 사람은, 두 학설이 모두 옳다고 말한다. 그것은 모두가 경문에 의하여 성립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nirvāṇa란 이름에는 두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隱密語와 顯了語이다. 현료어를 근거로 하여 보면 <nirvāṇa를> 바로 멸도라고 번역하게 되는데, 먼저 스승(有翻之說)의 학설과 같다. 그러나 은밀어를 근거로 하여 보면, <nirvāṇa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 스승(無翻之說)의 학설과 같다. 이러한 도리에서 보면 두 학설이 모두 옳다.

만일 이런 뜻을 근거로 하여 저 어려움을 풀면, 현료어의 뜻에 의하여 <nirvāṇa를> 바로 번역할 때는, '그 部類의 음성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널리 외치노라. 오늘 如來·應供·正遍知는 중생을 붙잡히여기고, 중생을 안아주며, 중생을 외아들 Rāhula처럼 평등하게 보

54 『大般涅槃經』

“諸結火滅故名滅度。離覺觀故故名涅槃。”(『大正藏』12-794b)

고, 중생을 위하여 귀의할 곳이 되어주며, 세간의 집이 되어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大覺·世尊은 곧 nirvāṇa에 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며, 은밀어의 뜻에 의하면 <nirvāṇa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뒤의 문장도 잘 풀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그것은 위에서 벌써 멸도는 nirvāṇa가 아니라고 말한> 멸도는 현묘어를 든다면, 죽음을 멸도라고 한 것이며, <멸도는> nirvāṇa가 아니라고 말한 <nirvāṇa는> 은밀어의 <여러 가지 뜻> 속에서 취한다면, 불멸이란 뜻이다.

어려운 뜻을 바르게 말하면, 만일 죽음을 멸도라고 말한 멸도의 뜻이 불멸인 nirvāṇa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불멸이라는 이름으로 '여래는 스스로 석 달 뒤에 pari-nirvāṇa에 든다고 하였는가?' 그것은 <부처님이> bodhitree 아래에서 成道하였을 때에 벌써 불멸인 nirvāṇa를 얻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번뇌가 있어야, <그것을 조건으로 수행하여> 생사를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벌써 예증한> 『大般涅槃經』의 「獅子吼菩薩品」 제23에서,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으므로 멸도라 한다.'⁵⁵라는 말은 현묘어의 뜻인 죽음을 멸도라고 말한 것이며, 또한 『大般涅槃經』의 「獅子吼菩薩品」 제23에서, '각관을 여의었으므로 nirvāṇa라고 말한다.'⁵⁶라는 말은 은밀어의 <여러 가지 뜻> 속에서 괴로움이 없다는 뜻을 취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것은 무여니르와아나에 들어갔을 때에는苦的 과보는 모두 없어져서 각관인 분별심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리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학설이 잘 풀린다고 말할 수 있다.

55 『大般涅槃經』(『大正藏』12-794b)

56 『大般涅槃經』(『大正藏』12-794b)

問若立後師義。是難云何通。謂有難曰。經說有翻耶得無翻。如言隨其類音。普告衆生。今日如來將欲涅槃。豈隨蜂蟻六道之音。得翻涅槃之名。而獨不得此國語翻。又當此處經文既翻云之滅度。豈可得云不能翻耶。彼師通曰。涅槃之名多訓之內且取一義翻爲滅度。卽依此訓普告衆生。非謂其名只翻滅度。以是義故彼難善通。

問若立初師義。是文云何通。如德王品菩薩難言。若使滅度非涅槃者。何故如來自期三月當般涅槃。師子吼〈孔〉品云。諸結火滅故名滅度。離覺觀故故名涅槃。以是文證。明知滅度非正翻於涅槃名也。彼師通曰。此等經文。是翻譯家胡(故)漢互舉綺飾其文。若使令存外國語者。卽言若使涅槃非涅槃者。又諸結火滅故名涅槃。離覺觀故故名涅槃。如其令存此土語者。卽云若使滅度非滅度者。下文例爾。由是義故不相違也。

問二師所說何是何非。答或有說者。二說俱是。悉依經文而成立故。是義云何。涅槃之名卽含二義。所謂密語及顯了語。依顯了語正翻滅度。如初師說。若依密語卽含多訓。如後師說(訓)。由是道理。二說悉得。若依是意通彼難者。就顯了義有正翻。故隨其類音普告衆生。就其密語含多義訓。是故後文亦得善通說言。若使滅度者。舉顯了語死滅度也。非涅槃者。取密語內不滅(識)義也。

難意正言。若使死滅之滅度義非不滅之涅槃義者。何故以是不滅(識)之名自期三月當般涅槃。以先樹下成道之時已得不滅(識)之涅槃故。要有煩惱乃滅(識)生死。故師子吼〔品〕言。諸結火滅名滅度者。亦是顯了語之滅度。離覺觀〈覺〉故名涅槃者取密語內無苦之義。入無餘時苦報滅已方離覺觀〈覺〉分別心故。由是道理諸說善(善說)通也。

제이목 뜻의 해석

I. 顯了義

다음에 <nirvāṇa의> 뜻을 해석한다는 것은 먼저 현료어에 근거해서 <한문으로> 번역된 뜻을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大滅度'라고 한다.

(1) 大

‘大’라고 하는 것은, 古人⁵⁷⁾이 말하기를,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라고 한다. 말하자면 거룩함을 해석할 때에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는 뜻이지, 시간의 전후를 가지고 따져서 앞서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經에 나타난 글에 의하면 ‘大’에는 여섯 가지 뜻이 있다.

57 여기서 말하는 古人은 누구일까? 고인으로는 淨影寺 慧遠(513-592)·天台 智顗(538-597)·嘉祥 吉藏(549-623), 세 스님을 생각할 수 있다. 혜원의 저술인 『大乘義章』(『大正藏』44-813c·國譯一切經諸宗部13-138), 지의의 저술인 『妙法蓮華經文句』(『大正藏』34-6a) 및 길장의 저술인 『涅槃遊義』(『大正藏』38-232b·駒澤大學佛敎學部論文集제3호) 속에 이와 비견할 만한 내용의 글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지의의 『妙法蓮華經文句』와 길장의 『涅槃遊義』보다는 혜원의 『大乘義章』으로부터 더욱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용을 비교·참고하기 위하여 혜원의 『大乘義章』과 길장의 『涅槃遊義』 가운데에서 ‘大’의 六義를 함께 인용하여 실기로 한다.

『大乘義章』

大義有六，一者常義。故涅槃云。所言大者名之爲常。譬如有人壽命無量名大丈夫。故涅槃云。所言大者其性廣博。猶如虛空無所不至。涅槃如是。故名爲廣。三者多義。能別非一。故涅槃云。譬如大藏多諸珍異。涅槃如是。多有種種妙法珍寶。故名爲大。四者深義。淵奧難測。故涅槃云。大者名爲不可思議。一切世間聲聞緣覺不能測量涅槃之義。故名爲大。五者高義。位分高出餘人不至。故涅槃云。譬如大山一切世人不能得上。故名爲大。涅槃如是。凡夫二乘及諸菩薩不能窮到。故名爲大。六者勝義。如世間中勝上之人。名爲大人。涅槃如是。諸法中勝。故名爲大。(『大正藏』44-813c)

『涅槃遊義』

但大有多義。依此經凡有六義。一者常故大。所言大者。名之爲常。然無常二得名大而終不及。常大薪大火。大薪不及火。常無常亦爾也。二者廣故大。所以然者。經云。所言大者。其性廣博廣。博故大也。三者高故大。經云。譬如大山。一切世人所不能上。故名大山。涅槃亦爾。聲聞緣覺及諸菩薩所不能上。是故名大。四者深故大。經云。大名不可思議。一切世人所不能測。是故名大也。五者多故名大。經云。譬如大城。多諸珍寶故名大城。涅槃亦爾。多諸法寶故名爲大。六者勝故名大。譬如有人。於人中勝故名大。涅槃亦爾。勝於一切故名爲大也。(『大正藏』38-233a)

① 넓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넓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大란 그 성품이 廣博하다."⁵⁸⁾

허공이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nirvāṇa도 이와 같아서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

② 길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길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大란, 이것을 이름하여 길다(長)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데 수명이 무량한 것을 大歲夫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⁵⁹⁾

③ 깊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깊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大란 이름하여 불가사의라고 한다. 모든 세간의 聲聞이나 緣覺은 nirvāṇa의 뜻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⁶⁰⁾

58 『大般涅槃經』

"所言大者其性廣博" (『大正藏』 12-631c)

59 『大般涅槃經』

"猶如有人壽命無量名大丈夫" (『大正藏』 12-631c)

60 『大般涅槃經』

④ 높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높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큰 산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nirvāṇa도 이와 같으므로 범부·이승 및 모든 bodhisattva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⁶¹⁾

⑤ 많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많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큰 庫藏에는 모든 진보가 많은 것과 같다. nirvāṇa도 이와 같으므로 모든 妙法의 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大'라고 한다."⁶²⁾

⑥ 훌륭하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훌륭하기로는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大'라고 한다. 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善男子, 大名不可思議, 若不可思議一切衆生所不能信, 是則名爲大般涅槃."

(『大正藏』12-746b)

61 『大般涅槃經』

"善男子, 若摩訶那伽及鉢提陀大力士等, 經歷多時所不能上乃名大山, 聲聞緣覺及諸菩薩摩訶那伽大力士等所不能見, 如是乃名大涅槃也." (『大正藏』12-746b)

62 『大般涅槃經』

"復次善男子, 譬如寶藏多諸珍異百種具足故名大藏, 諸佛如來甚深奧藏亦復如是, 多諸奇異具足無缺, 名大涅槃." (『大正藏』12-747a)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주인(勝上主人)을 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nirvāṇa도 이와 같으므로 모든 법 가운데서 훌륭하기 때문에 ‘大’라고 한다.”

‘大’의 뜻은 이와 같다.

次釋義者。且依顯了之語。以釋有翻之義。此土釋之。言大滅度。所言大者。古人釋云。莫先爲義。謂釋勝之時。莫是爲先。非約時前後言無先也。依下經文大有六義。一者廣之莫先故名爲大。如經言。大者其性廣博猶如虛空無所不至。涅槃如是故名爲大。二者長之莫先故名爲大。如經言。所言大者名之爲長。譬如有人壽命無量名大歲夫。三者深之莫先故名爲大。如經言。大者名爲不可思議。一切世間聲聞緣覺不能測量涅槃之義故名爲大。四者高之莫先故〔名〕爲大。如經言。譬如大山一切世人不能得上故名爲大。涅槃如是凡夫二乘及諸菩薩不能窮到故名爲大。五者多之莫先故名爲大。如經言。譬如大藏多諸珍寶。涅槃如是多有種種妙法珍寶故名〔爲〕大。六者勝之莫先故名爲大。如經言。如世間中勝上主人名爲大人。涅槃如是諸法中勝故名爲大。大義如是。

(2) 滅

‘滅’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네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事滅, 둘째는 理滅, 셋째는 德滅, 넷째는 擇滅이다.

① 事滅

事滅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⁶³⁾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것은 응신⁶⁴⁾이나 화신에 해당하는 것이며 正智마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름하여 ‘滅’이라고 한다. 『妙法蓮華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 오늘밤에 멸도⁶⁵⁾하는 것은, 마치 쉼이 다 타서 불이 꺼지는 것

63 無爲 : 모든 법의 진실체를 말함. 爲는 造作의 뜻.

64 應身 : 3身の 하나. 중생을 교화하려는 부처님이 중생과 같은 몸을 나타내는 몸.

과 같으니라."⁶⁵⁾

이와 같이 事滅은 체에 맞춰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② 理滅

理滅이라고 하는 것은 寂漠을 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본디부터 움직임도 없으며 일어남도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滅’이라고 한다. 『解深密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모든 사물은 나지도 않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본디부터 적정한 자성⁶⁷⁾이 nirvāṇa이다.”⁶⁸⁾

이와 같이 理滅은 온전함에 기대어 이름을 붙인 것이다.

③ 德滅

덕멸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영원히 여윈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공덕은 相을 여의고 性を 여의어, 자성을 지키지 않고 서로 한 맛(一味)이 되기 때문에 이름하여 ‘滅’이라고 한다. 『大般涅槃經』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안락을 받는 것이 곧 해탈⁶⁹⁾이며, 참으로 해탈한 이가 여래이고, 여래가

65 滅度：涅槃을 번역한 말. 나고 죽는 큰 환난을 없애어 번뇌의 바다를 건넜다는 뜻.

66 『妙法蓮華經』

“佛此夜滅度 如薪盡火滅”(『大正藏』9-5a)

67 自性svabhāva：그 자체의 정해진 본질. 사물로 하여금 그것이 그것이게 하는 所以, 진실하여 불변하는 본성.

68 『解深密經』

“世尊復說一切諸法皆無自性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大正藏』16-693c)

곧 nirvāṇa이다."⁷⁰⁾

이와 같이 덕멸은 뜻을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④ 擇滅(pratisamkhyā - nirodha)

택멸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끊어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번뇌를 잘 끊기 때문에 이름하여 '滅'이라고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nirvāṇa는 滅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름을 받는데는 대략 세 가지 뜻이 있다.

㉞ 곳에 따라서 이름을 얻는다

곳에 따라서 그 이름을 얻었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구경에는 머무름이 없는 근원에 도달하여, 이 곳에서 모든 번뇌를 끊었으며, 또 번뇌가 <생겨나는> 곳을 끊었기 때문에 이름하여 '멸'이라고 한다.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nirvāṇa도 또한 그러하다. 머무르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런 모든 부처는 번뇌가 생겨나는 곳을 끊었기 때문에 nirvāṇa라고 한다."⁷¹⁾

㉟ 원인에 따라서 이름을 얻는다

원인에 따라서 그 이름을 얻었다. 말하자면 지혜로써 <번뇌를>

69 解説：번뇌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경계에 이르는 것.

70 『大般涅槃經』

"受安樂者即眞解脫。眞解脫者即是如來。如來者即是涅槃。" (『大正藏』12-636a)

71 『大般涅槃經』

"善男子。涅槃之體亦復如是。無有住處。直是諸佛斷煩惱處。故名涅槃。"

(『大正藏』12-757b)

소멸하면 理는 잘 드러난다. 理가 드러난 것은 果이며, 지혜로써 <번뇌를> 소멸하는 것은 원인이 된다. 원인을 따라서 이름을 세워 '滅'이라고 한다. 이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번뇌를 섣으로 삼고 지혜를 불로 삼아, 이런 인연으로 nirvāṇa란 밥을 지어 내 딸·아들로 하여금 모두 다 맛있게 먹게 한다.”⁷²⁾

㉔ 결과에 따라서 이름을 얻는다

결과에 따라서 그 이름을 얻었다. 말하자면 지혜는 이치에 따라서 번뇌를 잘 滅하는데, 理를 滅의 원인으로 삼고, 智를 滅의 결과로 삼는다. 결과를 따라서 이름을 세워 '滅'이라고 한다. 『佛性論』⁷³⁾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물음 : 왜 부처님은 무생멸진을 nirvāṇa라고 하였는가?

대답 : 道는 nirvāṇa에 의해서 번뇌가 미래에 생겨나지 않게 하며, 현재에는 멸하게 한다. 원인 가운데에서 결과를 말하기 때문에 nirvāṇa를 이름하여 무생멸진이라고 한다.”⁷⁴⁾

멸의 뜻은 이와 같다.

所言滅者，略有四義。事滅理滅德滅擇滅。

72 『大般涅槃經』

“煩惱爲薪智慧爲火，以是因緣成涅槃食，謂常樂我，令諸弟子悉皆甘嗜。”

(『大正藏』12-625c)

73 佛性論 : 4권. 陳나라 眞諦 번역. 4~5세기 경에 인도의 論師 천진 지음. 내용은 연기분, 파집분, 현재분, 변상분의 4분으로 되어 佛性を 자세히 설명.

74 『佛性論』

“云何佛說無生滅盡爲涅槃也。答曰道依涅槃能使煩惱未來不生，現在者滅，因中說果故名涅槃爲無生滅盡。”(『大正藏』30-805a)

言事滅者，還無爲義。義當應化身，正智亦亡，故名爲滅。如經言，佛此夜滅度，如薪盡火滅。如是事滅，當體立名。

言理滅者，寂漠爲義。謂從本來，無動無起，故名爲滅。如經言，一切諸法，不生不滅。本來寂靜，自性涅槃，如是理滅，寄全〔立名〕《音》。

言德滅者，永離爲義。謂諸功德，離相離性，不守自性，互相一味，故名爲滅。如下文言，受安樂者，卽解脫。眞解脫者，卽是如來。如來卽涅槃乃至廣說，如是德滅，從義受名。

言擇滅者，斷除爲義。佛智能斷一切煩惱，故名爲滅。若依是義，涅槃非滅，而受名者，略有三義。一者從處得名，謂佛窮到無住之原，是處能斷一切煩惱，斷煩惱處，故名爲滅。如經言，涅槃亦爾，無有住處，宜是諸佛，斷煩惱處，故名涅槃。

二者從因受名，謂智滅或能顯於理，理顯是果，智滅爲因，從因立名，名《理》爲滅。如此經言，煩惱爲薪，智慧〈惠〉爲火，以是因緣，成涅槃食，令我諸弟子，皆悉甘嗜。

三者從果受名，謂智依理，能滅煩惱，理爲滅因，智是滅果，從果立名，名《理》爲滅。如佛性論云，道依涅槃能使煩惱未來不生。現在者〈不〉滅，因中說果故名涅槃爲無生滅盡，滅義如是。

(3) 度

다음으로 '度'란 간략하게 두 가지 뜻이 있다. 究竟이란 뜻과 到岸이란 뜻을 말한다. 도안이라는 뜻은 <번뇌를> 끊어 없애는 뜻을 나타낸다. 번뇌가 없어졌다는 것은 항상함이 아닌 뜻을 밝힌 것이니, 번뇌를 떠나 없어지게 하면 중생이 제도를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번뇌를 끊어 없애므로> 상주도 아니며 단멸도 아니기 때문에 멸도라고 한다.

究竟이란 뜻이라는 뜻은 <번뇌를> 소멸하여 없앤 덕이 구경이기 때문에 멸도라고 이름한다. '度'의 뜻은 이와 같다.

所言度者，略有二義。謂究竟義，及到岸義。到岸義者，顯顯斷義。煩惱滅者，

明非常義，煩惱離滅，衆生得度，非常非斷，故名滅度，究竟義者，滅德究竟，故名滅度，度義如是。

물음: 만일 번뇌를 끊는 것이 nirvāṇa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大般涅槃經」의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제22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가?

“佛性は 보지 못하면서 번뇌를 끊으면, 이것을 涅槃이라고는 하지만, mahā - pari - nirvāṇa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常도 없으며 我도 없고 다만 樂과 淨만 있다. 이런 뜻을 가지므로 번뇌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mahā - pari - nirvāṇa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만일 불성을 보면 번뇌를 잘 끊는데, 이것을 곧 이름하여 mahā - pari - nirvāṇa라고 한다. 불성을 보기 때문에 常·樂·我·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므로 번뇌를 끊은 것도 또한 mahā - pari - nirvāṇa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⁷⁵⁾

<거꾸로> 만일 번뇌를 끊어 없앤 것을 nirvāṇa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저 같은 품인 「大般涅槃經」의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제22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가?

“번뇌를 끊어 없앤 것을 nirvāṇa라고 부르지 않고, 번뇌가 생겨나지 않아야 nirvāṇa라고 부른다.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nirvāṇa라고 부른다.”⁷⁶⁾

75 『大般涅槃經』

“不見佛性而斷煩惱，是名涅槃非大涅槃，以不見佛性故無常無我唯有樂淨，以是義故，雖斷煩惱不得名爲大般涅槃也。若見佛性能斷煩惱，是則名爲大般涅槃，以見佛性故得名爲常樂我淨，以是義故，斷除煩惱亦得稱爲大般涅槃。”(『大正藏』12-758c)

76 『大般涅槃經』

解答 : 앞에서 인용한 글들은 nirvāṇa와 mahā-nirvāṇa의 차이를 가르기 위해서 두 가지 끊음을 들어 끊는 곳을 드러낸 것이며, 끊는 주체와 관련하여 nirvāṇa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 인용한 글은 Buddha와 bodhisattva의 차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다. bodhisattva가 끊는 곳에는 아직 번뇌가 남아 있기 때문에 nirvāṇa란 이름을 얻을 수 없고, 모든 부처님이 끊은 곳에는 필경 <번뇌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nirvāṇa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것은, 부처님이 光明遍照高貴德王 bodhisattva의 난해한 질의에 대하여 대답한 것으로, 그는 앞에서 다음과 같이 난해한 발언을 하였다.

“만일 번뇌가 없어진 곳을 nirvāṇa라고 한다면, 모든 bodhisattva는 무량한 kalpa 이전에 벌써 번뇌를 끊었는데, 왜 nirvāṇa라 부르지 않습니까? <Buddha와 bodhisattva가> 다 같이<번뇌를> 끊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독단적으로 모든 부처님은 nirvāṇa가 있고, bodhisattva는 없다고 합니까?”⁷⁷⁾

이러한 난해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부처님은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것과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간별한 것이다. 그러나 통틀어서 이것을 말하면, bodhisattva도 <번뇌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부처님도 <번뇌를> 끊어 없앤 것이다.

그러나 부문별로 나누어서 말하면, 끊어서 제거한다는 말은 벌써 생겨난 <번뇌를> 제거한다는 것이며, 생겨나지 않게 한다는 말은

“斷煩惱者不名涅槃。不生煩惱乃名涅槃。善男子。諸佛如來煩惱不起。是名涅槃。”

(『大正藏』12-758c)

77 『大般涅槃經』

“若言煩惱斷處是涅槃者。諸菩薩等於無量劫已斷煩惱。何故不得稱為涅槃。俱是斷處。何緣獨稱諸佛有之菩薩無也。”(『大正藏』12-757b)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를 생겨나지 않게> 막는다는 것이다. 벌써 생겨난 <번뇌를> 제거한다는 것은 앞의 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뜻이므로, 그 뜻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bodhisattva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를 생겨나지 않게> 막는다는 것은 뒤의 것을 바라보고 하는 뜻이므로, 그 뜻에 구경함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리에서 자세하게 분별하여 말하면, 번뇌를 끊어 없애는 일을 nirvāṇa라 말하지 않으며,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nirvāṇa라고 한다. 이런 뜻을 가지므로 위의 두 글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다. <nirvāṇa의> 이름과 뜻에 관한 해석을 마친다.

問若斷煩惱。非涅槃者。何故德王菩薩品云。不見佛性而斷煩惱。是名涅槃。非大涅槃。≤以不見佛性故無常無我唯有樂淨。以是義故。雖斷煩惱不得名為大般涅槃也。若見佛性能斷煩惱。是則名為大般涅槃。≥以見佛性故得名為常樂我淨。≤以是義故。斷煩惱亦得稱為大般涅槃。若斷煩惱稱涅槃者。何故彼品下文說言。斷煩惱者不名涅槃。不≤生≥煩惱乃名涅槃。善男子諸佛如來煩惱不起是名涅槃。

解云。前所引文為簡涅槃大涅槃異故。舉二斷以顯斷處。非約能斷名為涅槃。後所引文為簡諸佛與菩薩異。菩薩斷處猶有餘惑。故不得受涅槃之名。諸佛斷處畢竟不生。所以得立涅槃之稱。是答德王菩薩難意。

彼前難言。若言煩惱滅之處是涅槃者。諸菩薩等於無量劫已斷煩惱。何故不得稱為涅槃。俱是斷處。何緣獨稱諸佛有之。菩薩無耶。為答是難。故依斷與不生簡別。

通而言之。菩薩亦不生。諸佛亦是斷。

別門而言。斷除之稱遺於已生。〔不生〕之辭遮於未起。遺已生者。望前之義。義在不足。故說菩薩。遮未起者。望後之義。義在究竟。故說諸佛。依是道理精別而言。斷煩惱者不名涅槃。不生煩惱乃名涅槃。以是義故不相違也。名義門竟。

제이항 體相門

體相門 안에는 첫째는 體性的 증명, 둘째는 虛實의 간별이 있다.

第二出體. 於中有二. 先出體性. 後簡虛實.

제일목 體性的 증명

체성을 증명하는 모든 학설이 동일하지 않다.

出體性者諸說不同.

I. 때가 끼지 않은 眞如가 니르와아나의 체성이다

어떤 학자는, 때가 끼지 않은 眞如(tathata,⁷⁸⁾ 이것이 nirvāṇa의 體性이라고 말한다. 비로소 공덕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nirvāṇa가 아니며, 곧 지혜를 증득하는 것, 이것이 bodhi이기 때문이다.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nirvāṇa라고 하는 뜻은 곧 모든 부처님의 法性이다.”⁷⁹⁾

또 『大般涅槃經』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nirvāṇa의 체성은 본디부터 스스로 있었던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다.”⁸⁰⁾

78 SED p.433c

tathā so, thus, in that manner, also, true 如

tathatā true state of things, true nature. 如如, 眞如

79 『大般涅槃經』

“涅槃義者即是諸佛之法性也.” (『大正藏』 12-622a)

80 『大般涅槃經』

“涅槃之體非本無今有. 若涅槃體本無今有者. 則非無漏常住之法. 有佛無佛性相常住. 以

그리고 『摩訶般若波羅蜜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모든 법의 성품은 空하다는 것이 곧 nirvāṇa이다.”⁸¹⁾

『占察善惡業報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번뇌와 생사는 마침내는 그 체가 없으므로,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 본디 생겨나지도 않았으므로 실로 다시 소멸할 것도 없다. 자성이 적정한 것이 곧 nirvāṇa이다.”⁸²⁾

이와 같이 예증할 수 있는 경문들은 이루 다 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진여에 대한 바른 앎이 곧 nirvāṇa라는 것을 알게 된다. 번뇌를 끊어 없애고 뜻을 나타내는 바의 부문은 곧 진여를 논설하여 數滅이 된다고 말한다. 數滅은 곧 때가 끼지 않은 진여이다.

或有說者，無垢眞如是涅槃體，始起功德非是涅槃，即能證智是菩提故，如經云，涅槃義者即是諸佛之法性也，又下文言，涅槃之體本自有之非適今也，大品經云，諸法性空即是涅槃，占察〈密〉經云，煩惱生死畢竟無體，求不可得，本來不生，實更不滅，自性寂靜即是涅槃，如是等文不可具陳，故知眞如正知，其是涅槃，斷滅煩惱，所顯義門，即說眞如，名爲數滅，數滅即是無垢眞如。

諸衆生煩惱覆故不見涅槃，便謂爲無，菩薩摩訶薩以成定慧，熏修其心，斷煩惱已使得見之，當知涅槃是常住法非本無今有，是故爲常，善男子，如閻室中并種種七寶，人亦知有，闇故不見，有智之人善知方便，燃大明燈持往照了悉得見之，是人於此終不生念水及七寶本無今有，涅槃亦爾本自有之非適今也。”(『大正藏』12-735b)

81 『摩訶般若波羅蜜經』

“諸法畢竟空即是涅槃”(『大正藏』8-401b)

82 『占察善惡業報經』

“又煩惱生死畢竟無體，求不可得，本來不生實更無滅，自性寂靜即是涅槃。”
(『大正藏』17-909c)

II. 果地の 모든 德이 니르와아나의 체성이다

어떤 학자는, 果地の 萬德을 本覺·始覺을 묻지 않고, 전부 묶어서 하나의 mahā - nirvāṇa의 체로 삼는다고 말한다. 이 『大般涅槃經』 가운데에서 통틀어 三事가 nirvāṇa가 된다고 말쑤한 것과 같다.⁸³⁾ 그리고 또 이 『大般涅槃經』 아래의 글에서는 다시 ‘여덟 가지의 自在’⁸⁴⁾를 말쑤하고 나서, 전체적인 결론을 지어 다음과 같이 말쑤한다.

“이와 같이 大我를 이름하여 mahā - nirvāṇa라 한다.”⁸⁵⁾

『妙法蓮華經優波提舍』 (=法華論)에서 말한다.

“오직 부처님만이 mahā - bodhi를 증득하시어, 구경에는 일체의 지혜를 만족하니, 이를 mahā - nirvāṇa라 이름한다.”⁸⁶⁾

또 <Paramārtha가 번역한> 『攝大乘論釋』에서 말한다.

“三身은 無上の bodhi를 나타낸 것이다.”

83 『大般涅槃經』

“猶如伊字三點，若並則不成伊縱亦不成，如摩醯首羅面上三目，乃得成伊，三點若別亦不得成，我亦如是，解脫之法亦非涅槃，如來之身亦非涅槃，摩訶般若亦非涅槃，三法各異亦非涅槃，我今安住如是三法，爲衆生故名入涅槃，如世伊字。”（『大正藏』12-616b）

84 『大般涅槃經』

“云何名爲大自在耶，有八自在則名爲我，何等爲八，一者能示一身以爲多身……

八者如來遍滿一切諸處猶如虛空，虛空之性不可得見，如來亦爾實不可見，以自在故令一切見，如是自在名爲大我。”（『大正藏』12-746c~747a）

85 『大般涅槃經』

“如是我名大涅槃”（『大正藏』12-747a）

86 『妙法蓮華經優波提舍』

“唯佛如來證大菩提，究竟滿足一切智慧，名大涅槃。”（『大正藏』26-17a）

여기서 벌써 三身은 모두 이것이 깨달음(=bodhi)이라 하였으니, 마땅히 <삼신이> 모두 mahā - nirvāṇa의 체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두 학설은 모두 도리가 있다. 그러한 까닭은 nirvāṇa와 bodhi는 공통되는 점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구별되는 부분에서 말하면, bodhi, 이것은 果地로서, 능증(能證)의 덕에 있으며, 四諦 가운데에서 道諦에 포섭되는 것이고, nirvāṇa란 과보, 이것은 所證의 법이며, 四諦 가운데에서 滅諦에 포섭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공통되는 부분에서 말하면, 果地인 道諦에 <포섭되는 bodhi도> 역시 nirvāṇa이며, 소증의 진여인 <nirvāṇa도> 역시 bodhi인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사에도 공통되는 점과 구별되는 점이 있으니, 구별되는 점에서 말하면 內根이 시작될 때를 출생이라 하고 內根이 끝나는 때를 사망이라고 한다. 어느 『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태어남이란 모든 근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며, 죽음이란 것은 모든 근이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틀어 논술하면, 모든 더럽게 물든 것들은 모두 생겨나고 죽는다.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空śūnya⁸⁷⁾이란 모든 삶과 죽음이며, 不空이란 mahā - nirvāṇa를 가리킨

87 SED p.1085a

√śvi(=√śū a weak form of √śvi) to swell grow, increase; to swell much
śūnya empty, void, hollow, barren; vacant; absent, void of, free from, non-existent 空.

śūnyatā f. emptiness, loneliness, desolateness, absence of mind, nothingness, non-existence, non-reality, illusory nature(of all worldly phenomena) 空性.

다. 내지, 無我인 것은 생겨나고 죽는다"⁸⁸⁾

이러한 삶과 죽음에 待對하여 nirvāṇa를 논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nirvāṇa에도 또한 공통되는 점과 구별되는 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或有說者。果地萬德不問本始。總束爲一大涅槃體。如此經中總說三事卽爲涅槃。又下文說。八自在已。總結而言。如是我名大涅槃。法花論云。唯佛如來證大菩提。究竟滿足一切智慧<惠>名大涅槃。攝大乘論云。三身所顯無上菩提。既說三身皆是菩提。當知皆爲大涅槃體。如是二說皆有道理。所以然者。涅槃菩提有通別。

別門而說。菩提是果。在能證德。道諦所攝。涅槃果之。是所證法。滅諦所攝。通門而言。果地道諦亦是涅槃。所證眞如亦是菩提。

例如生死有通有別。

別而言之。內根始終名爲生死。如經言。生者新諸根起。死者諸根滅盡。

通而論之。諸雜染法皆是生死。如經言。空者一切生死廣說乃至無我一切生死。對此生死。以說涅槃。故知涅槃亦有通別。

물음 : 만일 始覺에 공덕이 있다면 또한 이것도 nirvāṇa이며, 이는 곧 nirvāṇa에도 또한 生因kāraṇa - hetu⁸⁹⁾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大般涅槃經」의 「迦葉菩薩品」 제2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가?

88 「大般涅槃經」

“空者一切生死。不空者謂大涅槃。乃至無我者卽是生死。”(『大正藏』12-767c)

89 生因kāraṇa - hetu : 결과를 생성시키는 원인, 사물을 생성시키는 원인, 실재근거 그 자체, 밖에 대한 종자. 서양의 ratio essendi에 해당한다. 객관적 자연계에 있어서, 甲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乙이라고 하는 것을 생기·존재시키는 것이라면, 甲은 乙의 생인이다. 了因jñāpaka - hetu의 반대말.

“세 가지의 해탈문⁹⁰⁾과 서른일곱 가지의 助道品⁹¹⁾은, 모든 번뇌를 위하여는 <번뇌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生因^{karaka-hetu}이 되지만, 또한 nirvāṇa를 위하여는 了因^{jñāpaka-hetu}⁹²⁾도 된다. 선남자야, 번뇌를 여의면 곧 요묘하게 nirvāṇa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nirvāṇa에는 오로지 了因만 있으며 生因이 있는 것은 아니다.”⁹³⁾

위아래의 모든 글 가운데에서 모두 오직 了因만 있으며, 아직 일찍이 生因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답 : 始覺에 공덕이 있다면, 이것이 nirvāṇa라고 하더라도, nirvāṇa의 뜻은 적멸에 있으며, 적멸의 덕은 了得된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오직 了因만 있다고 말한 것이다. bodhi는 生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또한 了因에 의거해서 了得된 것이라고 말

90 三解脫門=三三昧 tri-samādhi : 세 가지의 선정, 깨달음으로 통하는 세 가지의 길, 무루인 해탈에 들어가는 문

空samādhi : 제법은 空·無我라고 관조하는 samādhi

無相samādhi : nirvāṇa는 色·聲·香·味·觸·法の 상, 男·女 등의 차별상을 여윈 것이라고 관조하는 samādhi

無願samādhi=無作samādhi : 삼계에서는 願求해야만 할 것이 없다고 관조하는 samādhi

91 三十七助道品=三十七道品=三十七覺分=三十七緣=三十七智=三十七分法=三十七善提分法

sapta-triṃśad-bodhipakṣa :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실천수행의 방법. 니르와아나에 도달하기 위한 서른 일곱 가지 수행방법.

四念處+四正勤(四正斷)+四神足(四如意足)+五根+五力+七覺支+八正道

92 了因jñāpaka-hetu : 인식근거 그 자체, 서양의 ratio cognoscendi에 해당한다. 甲을 근거로 하여 乙의 존재를 추론할 경우에는, 甲은 乙의 요인이다. 생인^{karaka-hetu}의 반대말.

93 『大般涅槃經』

“三解脫門三十七品。能爲一切煩惱。作不生因。亦爲涅槃。而作了因。善男子。遠離煩惱。則得了見於涅槃。是故涅槃唯有因。無有生因。”(『大正藏』12-827b)

하는 것과 같다. 곧 이러한 뜻에 준하여, nirvāṇa는 了因에 의거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면서 또한 生因에서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도리로 말미암아 서로 틀리는 것이 아니다. nirvāṇa의 체상은 이와 같다.

問若始有功德亦是涅槃。是《是》即涅槃亦有生因。若爾何故迦葉品云。三【十七】脫門三十七品。能爲≤一切煩惱。≥【涅槃】作≤不生≥生因。【作生因】亦爲涅槃。而作了因。善男子。遠離煩惱。即得了見於涅槃。是故涅槃唯有了因。無有生因。上下諸文之中皆說唯有了因。未曾言亦有生因。答始有功德難是涅槃。涅槃之義存於寂滅。寂滅之德合於所了。是故說言。唯有了因。如說菩提生因所生而亦有說了因所了。即是義准。當知涅槃了因所顯而亦得言生因所起。由是道理故不相違也。體相如是。

제이목 허망과 진실을 가린다

다음에 허망과 진실을 가린다.

물음 : 삶과 죽음의 법칙, 이것은 허망한 것이다. 허망하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니르와아나라는 果地는 진여를 체성으로 삼는데, 이를 허망하다고 해야 하는가, 진실하다고 해야 하는가, 공이라고 해야 하는가, 불공이라고 해야 하는가?

次簡虛實。問生死之法是虛妄。虛妄故空。是事可爾。涅槃之果眞如爲體。爲虛爲實爲空〔爲〕不空

대답 : 어떤 스승은, 니르와아나의 체성, 이것은 진실하므로 틀림 없이 不空이라고 한다. 이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한 것과 같다.

“참으로 해탈한 이, 곧 이는 여래이다. 여래, 곧 이는 결정이다.”⁹⁴⁾

또 『大般涅槃經』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한다.

“空이란 모든 삶과 죽음이며, 不空이란 maha - nirvāṇa를 가리킨다. 내지…….”⁹⁵⁾

또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에서 말씀한다.

“세존이시여, 四聖諦 가운데에서 苦·集·道の 三諦는 무상이며, 滅의 一諦는 常住입니다. 왜 그런가? 三諦는 유위상에 들어가며, 유위상에 들어가는 것은 무상입니다. 무상인 것은 허망한 법입니다. 허망한 법은 諦가 아니며, 常이 아니고, 依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苦諦·集諦·道諦는 第一義諦가 아니며, 常이 아니고, 依가 아닙니다. 내지…….”⁹⁶⁾

이와 같이 예증할 수 있는 경문들은 이루 다 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니르와아나, 이는 진실하여 불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니르와아나가 모두 다 空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망한 마음으로 취하는 바의 니르와아나를 버리고, 참된 지혜로 증득하는 바의 니르와아나를 말하려는 것이다. 만일 니르와아나가 공이라면, 이는 곧 여래·‘부처님의 마음자리(佛性)’가 모두 공이다. 그렇다면 열한 가지의 空 속에서 어느 공에 해당하는가? 벌써 어느

94 『大般涅槃經』

“受安樂者即眞解脫。眞解脫者即是如來。如來者即是涅槃。涅槃者即是無盡。無盡者即是佛性。佛性者即是決定。”(『大正藏』12-636a)

95 『大般涅槃經』

“空者一切生死。不空者謂大涅槃。乃至無我者即是生死。”(『大正藏』12-767c)

96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世尊。此四聖諦。三是無常。一是常。何以故。三諦入有爲相。入有爲相者是無常。無常者是虛妄法。虛妄法者非諦非常非依。是故苦諦集諦道諦非第一義諦。非常非依。”

(『大正藏』12-221c)

공에도 포섭되지 않는다면 <니르와아나는> 不空이라고 알아야 한다.

答或有說者，涅槃之體性，是真決定不空，如此經云，眞解脫者卽是如來，如來者卽是決定，又下文言，空者一切生死，不空者謂大涅槃乃至廣說，勝鬘經說，三諦是有爲是虛妄，一苦滅諦是實乃至廣說，如是等文不可具陳，故知涅槃，是實不空，而餘處說皆悉空者，是遺妄心所取涅槃，說眞智所證涅槃，若使涅槃亦是空者，是卽如來佛性皆空，十一空內入於何空，既非空攝，當知不空。

어떤 스승은, 삶과 죽음 그리고 니르와아나는 모두 다 허망한 것이므로, 공이며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법의 뜻은 한 법도 공이 아닌 것이 없다. 『大般涅槃經』의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 제22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과 같다.

“prajñā - pāramitā도 공이며 내지 dāna - pāramitā(=布施)도 또한 공이고, 여래도 또한 공이며 mahā - nirvāṇa도 또한 공이다. 그러므로 bodhisattva는 모든 법이 다 공이라고 본다.”⁹⁷⁾

『大方廣佛華嚴經』에서 말씀한다.

“삶과 죽음 그리고 니르와아나는 모두 허망하다. 어리석음과 지혜도 역시 이와 같으므로 둘 다 진실이 아니다.”⁹⁸⁾

97 『大般涅槃經』

“般若波羅蜜亦空，禪波羅蜜亦空，毘梨耶波羅蜜亦空，Kṣanti - pāramitā亦空，尸羅波羅蜜亦空，檀波羅蜜亦空，色亦空眼亦空識亦空，如來亦空，大般涅槃亦空，是故菩薩見一切法皆悉是空。”(『大正藏』12-765c)

98 『大方廣佛華嚴經』

“生死及涅槃此二悉虛妄，愚智亦如是，二俱無真實。”(『大正藏』9-464c)

이와 같이 예증할 수 있는 경문들은 이루 다 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공이라고 알아야 그를 평등이라고 이름한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삶과 죽음은 허망하지만 니르와아나는 不空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얇은 지식을 가진 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막 발심한 이는 <니르와아나가 공이라는 말을 듣고서> 놀라고 두려워할까 하여 방편으로 말한 것이다. 『摩訶般若波羅蜜經』에 있는 「如化品」 第八十七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만일 법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모두 변화하느니라. Subhūti가 여쭙는다. 세존이시여, 어느 법들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만일 법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면, 이것은 변화하지 않느니라. Subhūti가 여쭙는다. 어느 것들이든지, 이것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誑相이 아닌 니르와아나nirvāṇa, 이것은 변화하지 않느니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은 평등하여, 성문이 지은 것이 아니며, 백지불이 지은 것이 아니고, 모든 bodhisattva-mahāsattva가 지은 것이 아니며, 모든 부처님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모든 법의 성품은 늘 공이며, 성품이 공인 것이 곧 nirvāṇa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니르와아나라는 한 법만은 幻化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이 Subhūti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고 그러하다. 모든 법은 평등한 것이며, 내지 성품이 공인 것이 곧 nirvāṇa이니라. 그런데 만일 새로 발심한 bodhisattva들은 일체의 법이 모두 필경에는 공한 것이어서 내지 nirvāṇa까지도 또한 환화와 같은 것이라고 들으면, 마음이 곧 놀래고 두려워할 것이니라. 이렇게 새로 발심한 bodhisattva들을 염려하고 보호하려는 까닭에,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은 모두 幻化와 같으며,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것은 환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분별하느니라.

Subhūti가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새로 발심한 bodhisattva들을 가르쳐서, 모든 법의 성품이 공인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Subhūti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이 본디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겠는가라고 하신다.⁹⁹⁾

이러한 글을 증거로 하여 보면, 다른 곳에서 니르와아나가 불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것이 방편의 말씀이므로 도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니르와아나의 공과 ‘부처님의 마음자리(佛性)’의 공은, 열한 가지 空¹⁰⁰⁾ 가운데에서 어디에 포섭되는가? 그것은 空空śūnyatā - śūnyatā에 포섭된다. 그러므로 이 공은 오직 부처님만이 온전히 아신다고 한다. 그리고 열여덟가지 공¹⁰¹⁾ 가운데에서 필경공이기 때문에, 앞에서 인용한 『摩訶般若波羅蜜經』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99 『摩訶般若波羅蜜經』

“若有法生滅相者。皆是變化。須菩提言。世尊。何等法非變化。佛言。若法無生無滅。是非變化。須菩提言。何等是不生不滅非變化。佛言。不誑相涅槃。是法非變化。世尊。如佛自說諸法平等。非聲聞作。非辟支佛作。非諸菩薩摩訶薩作。非諸佛作。有佛無佛諸法性常空。性空即是涅槃。云何言涅槃一法非如化。佛告須菩提。如是如是。諸法平等非聲聞所作。乃至性空即是涅槃。若新發意菩薩聞是一切法畢竟性空。乃至涅槃亦皆如化心則驚怖。爲是新發意菩薩故。分別生滅者如化。不生不滅者不如化。須菩提白佛言。世尊。云何教新發意菩薩。令知性空。佛告須菩提。諸法本有今無耶。”(『大正藏』8-416a)

100 11空：內空・外空・內外空・有爲空・無爲空・無始空・性空・無所有空・第一義空・空空・大空

101 열여덟 가지 空：『大智度論』에서 공을 열 여덟 가지로 나누어 관찰한 것이다. 대승에서 실천해야 할 공을 열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관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內空・外空・內外空・空空・大空・第一義空・有爲空・無爲空・畢竟空・無始空・散空・性空・自相空・諸法空・不可得空・無法空・有法空・無法有法空.
(『大正藏』25-285a)

만일 다른 모든 경에서 말씀하는 바의 니르와아나는 다 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망한 마음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없애려는 것이며, 또 다른 경에서 말씀하는 바의 삶과 죽음의 법이 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편견으로 집착하는 生死를 없애려는 것이다. 만일 이것(삶과 죽음)이 그렇지 않다면 저것(니르와아나)도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만일 니르와아나를 실제로 있는 것(實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곧 실제로 있다(實有)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있다(實有)는 말을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實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망어이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로 있다(實有)고 말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마음으로 허망하게 집착하는 경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或有說者，生死涅槃皆是虛妄空無所得。佛法之義無有一法而不空者。如德王品云。般若波羅蜜亦空。乃至檀波羅蜜亦空。如來亦空。大般若亦空。是故菩薩見一切法皆悉是空。花嚴經言。生死及涅槃。是二悉虛妄。愚智亦如是。二皆無真實。如是等文不可具陳。當知悉空乃名平等。而餘處說生死虛妄涅槃不空等者。爲護淺識。新發意者生驚怖故。作方便說。如大品經化品言。若法有生滅相者。皆是變化。若法無生無滅。是非變化。所謂無誑相涅槃。是法非變化。須菩提言。如佛自說諸法平等。非聲聞作乃至非諸佛作。有佛無佛諸法性常空。性空卽是涅槃。云何言涅槃一法不如化。佛言。如是如是。諸法平等乃至性空卽是涅槃。若新發意菩薩聞一切皆畢竟空。乃至涅槃亦皆如化。心卽驚怖。爲是新發意菩薩故。分別生滅者如化。不生滅者不如化。須菩提言。世尊云何令新發意菩薩知是性空。佛告須菩提。諸法先有今無耶。

依是文證。當知餘處說不空者。皆是方便語。不盡道理也。是涅槃空及佛性空十一空內。何所攝者。空空所攝。故說是空。唯佛所窮。十八空中畢竟空故。如前所引般(槃)若經說。若使諸經所說涅槃皆空。是遺妄心所取相者。是卽諸經所說。生死法空。是遺遍計所執生死。若此不爾彼亦不然。又若涅槃是實有者。

卽不能離實有之言. 其能離實有言者卽謂實有. 宜是妄語. 是故當知彼說實有. 唯說自心妄取(耶)境界耳.

물음 : 이와 같이 두 스승이 말한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대답 : 만일 말에만 집착하면, 두 학설이 모두 다 그른 것이다. 서로 대립하고 다투면 부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결코 집착하지 않으면, 두 학설이 모두 다 맞는 것이다. 법문은 걸림이 없으므로 서로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가? 만일 功德과 患難이라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곧 삶과 죽음은 空이요, 니르와아나는 不空이다. 허망한 마음으로 취한 것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空이라고 알아야 한다. 허망한 마음을 취하면 자재를 얻지 못하므로 무아라고 말한다. 진실한 지혜로 증득하게 된(所證) 도리는 마음과 어울리기 때문에 不空이라고 말한다. 증득하는(能證) 진실한 지혜는 걸림이 없이 자재하기 때문에 大我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하여 본다면, 앞의 스승이 정립한 주장이 옳다. 그가 인용한 글은 모두 了義說이기 때문이다.

만일 相待하여 자상이 없는 부문에서 보면, 삶과 죽음 그리고 니르와아나는 똑같이 자성이 없다. 不空으로써 空을 相待한 것이며, 我로써 無我를 상대한 것이고, 無待로써 有待를 相待하기 때문이다. 『大乘起信論』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또 다음에, 드디어 <자아를 고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현상세계는 실제적인 요소가 모여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견해를> 모두 온전히 펼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더럽게 물든 현상세계와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는 서로 기대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그 자신의 고유한 특질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¹⁰²⁾

이와 같은 입장에 근거하여 본다면, 뒤의 스승이 정립한 주장이 옳다. 그가 인용한 글은 모두 了義說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mahā-nirvāṇa는, 相도 떨쳐버리고 性도 떨쳐버렸으며, 공도 아니며 불공도 아니고, 我也 아니고 無我也 아니다. 그런데 왜 공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無性을 떨쳐버렸기 때문이며, 왜 또 불공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有性을 떨쳐버렸기 때문이다.

또는 有相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我가 아니라고 말하며, 無相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무아도 아니라고 말하며, 무아가 아니기 때문에 대아라고 말할 수 있으며, 我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무아라고 말한다. 또는 空이 아니기 때문에 實有라고 말하며, 不空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여래가 물래 깊숙이 간직한 뜻이 이와 같다. 그러니 어찌 비밀리에 대립적인 쟁론을 그 사이에 두겠는가? 체상문을 마친다.

問如是二說何得何失。答若如言取二說皆失。互相異諍失佛意故。若非定執二說俱得。法門無碍不相妨故。是義云何。若就總患相對之門。卽生死是空。涅槃不空。以妄心所取無境。當知。故說爲空。能取妄心不得自在。故說無我。眞智所證道理稱心。故說不空。能證眞智無碍自在。故名大我。依如是門。前師爲得。彼所引文是了義說。若就相待無自相門。則生死涅槃。等無自性。以不空待空。我待無我。乃至無待待於有待故。如起信論云。復次一切染法淨法皆是相待無有自相可說。依如是文後說爲得。其所引文非不了說。又大涅槃離相離性非空非不(不非)空非我非無我。何故非空。離無性故。何非不空。離有性故。又離有相故說非我。離無相故說非無我。非無我故得說大我。而非我故亦說無我。又非空故得言實有。非不空故得說虛妄。如來秘藏其義如是。何密(蜜)異諍於其間哉。體[相]門竟。

제삼항 通局門

<니르와아나의> 공통되는 점과 국한되는 점을 증명하는 부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소승에 관한 논술, 둘째는 대승에 관한 논술이다.

第三明通局門者。於中有二。先小後大。

제일목 소승에 관하여 논술한다

소승 안에는 <와아뜨씨이뿌리이야(Vātsīputriya, 犢子部)와 싸르와아스띠바아딘(Sarvāstivādin, 說一切有部)>의 두 부과의 학설이 있다.

小乘之內二部異說。

I. 범부와 성인에 공통이다

와아뜨씨이뿌리이야에서는, <니르와아나는> 범부나 성인에게 모두 공통이라고 말한다. 와아뜨씨이뿌리이야에서는 니르와아나에 세 가지 명칭이 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有學śaikṣa · 無學aśaikṣa · 非學非無學이다.¹⁰³⁾ 범부들의 지혜로 번뇌를 끊어 없애고 얻은 니르와아나를 非學非無學¹⁰⁴⁾이라고 한다. 有學이 성위에서 얻는 것은 무위라고 하며, 무학은 니르와아나라고 한다.

103 『大智度論』

“是智慧有三種。學無學非學非無學。非學非無學智者如乾慧地不淨安那般那欲界繫四念處煖法頂法忍法世間第一法。”(『大正藏』25-191a)

104 비학비무학naiva śaikṣā nāśaikṣā : 사향사과 이전의 유무, 곧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犢子部說通於凡聖。彼說涅槃有其三稱。謂學。無學。非學非無學。凡夫等智斷結所得涅槃。名非學非無學。有學聖位所得無爲。無學涅槃。

II. 오로지 無學만이다

싸르와아스띠바아딘에서 논설하는 바에 따르면, 니르와아나라는 이름은 오직 무학¹⁰⁵에만 있다고 한다. 무학의 계위에 있는 사람이 번뇌를 끊어 없애고 얻은 무위, 오직 이것만을 멸이라고 한다. 멸이라고 이름하지 않는 것은 니르와아나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大智度論』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空無邊處의 욕망 내지 非想非非想處地의 여덟 가지의 욕망을 멸쳐버린

105 무학asaikṣa(=Pāli asekha)

- | | | |
|----|-----|---|
| 有學 | 見道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預流向Srota āpatti phala pratipannaka : 삼계의 見惑을 끊고 있는 見道 15心 사이에 있는 계위 預流果Srota āpatti phala : 見道15心を 마친 뒤 제16심, 곧 修道에 들어간 계위 一來向Sakṛd āgāmi phala pratipanna : 욕심이 지배하는 세계에는 수행에 의하여 소멸되어지는 9종의 번뇌가 있는데, 그 중의 6종을 단멸시키고 있는 계위 |
| | 修道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來果Sakṛd āgāmi phala : 욕심이 지배하는 세계에는 수행에 의하여 소멸되어지는 9종의 번뇌가 있는데, 그 중의 6종을 단멸시킨 사람이 얻은 계위 不還向Anāgāmi phala pratipannaka : 불환과로 향하고 있는 계위 不還果Anāgāmi phala : 이미 욕계의 모든 번뇌를 끊고 천상에 태어나 욕계에 되돌아오지 않는 계위 無學向Aśaikṣa phala pratipannaka : 무학과로 향하고 있는 계위 |

無學——無學位——無學果Aśaikṣa phala : 이미 배울 것을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워야 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깨달음의 경지. 모든 이론적 미혹(見惑)과 정지의 미혹(思惑)을 모두 끊은 사람을 말하며, 전자를 성취한 것을 慧解脫, 후자를 성취한 것을 心解脫이라고 한다.

것, 그것을 斷이라고 하며, 멸이라고 하고, 무욕이라고 하며, 체라고 한다. 그러나 斷智라고 하지 않으며, 사문과라고 하지 않고, 유여열반이라고 하지 않으며, 무여열반이라고 하지 않는다. 무생의 지혜를 다하여서 非想非非想處地의 아홉 가지의 번뇌를 끊어버린 것, 그것을 단이라고 하며, 멸이라고 하고, 무욕이라고 하며, 諦라고 하고, 단지라고 하며, 사문과라고 하고, 유여열반이라고 하며, 무여열반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arhan은 五蘊·十二處·十八界가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斷이라고 하며, 無欲이라고 하고, 諦라고 하며, 단지라고 하며, 사문과라고 하고, 무여열반이라고 하며, 유여열반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若依薩婆多部所說。涅槃之名。唯在無學。無學人斷結所得無爲。唯名滅等。不名滅等。不名涅槃。如智度論云。離空處欲乃至非想地八種欲。彼名斷名滅名無欲名諦。不名斷智不名沙門果不名有餘涅槃不名無餘涅槃。盡無生智。非想九種結斷。彼名斷名滅名無欲名諦名斷智名沙門果名有餘涅槃。不名無餘涅槃。阿羅漢陰入界(界入)不相續。彼〔名〕斷名滅名無欲名諦名斷智名沙門果名無餘涅槃。不名有餘涅槃。

제이목 대승에 관하여 논술한다

만일 대승에 의거하여 보면, 곧 <니르와아나에 대하여> 네 句節이 있다.

若依大乘卽有四句.

1. 완전히 공통되는 부문이다

<범부와 성인에게> 완전히 공통되는 부문이다. 범부·이승·보오디샛뜨와·부처님에게 모두 니르와아나가 있다는 것이다. 이『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모든 범부들이 세속의 도리에 의지하여 번뇌를 끊어 없애는 수행을 닦아 니르와아나에 들어간다고 한다.”¹⁰⁶⁾

또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배가 고평데 조그만 음식을 얻어도 안락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안락을 또한 니르와아나라고 한다. 내지…….”¹⁰⁷⁾

그러므로 聖人の nirvāṇa에 대하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一極通門。凡夫二乘菩薩與佛皆(音)有涅槃。如此經言。諸凡夫人。依世俗道。行斷結行。名入涅槃。又言得少飲食。亦名得涅槃乃至廣說。聖人涅槃不待言論。

II. 범부와 성인을 가리는 부문이다

범부와 성인을 구별하여 보는 부문에서는, 성인에게는 니르와아나가 있으며 범부에게는 없다고 한다. 『菩薩地持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삼승의 聖人에게는 틀림없이 니르와아나가 있으므로 이를 正定聚niyata - rāsi¹⁰⁸⁾라고 한다. 외범에게는 틀림없이 없으므로 이를 邪定聚mithy

106 『大般涅槃經』

“善男子。若凡夫人及以聲聞。或因世俗。或因聖道。斷欲界結則得安樂。如是安樂亦名涅槃。不得名爲大涅槃也。”(『大正藏』12-746a)

107 『大般涅槃經』

“善男子。如人飢餓得少飲食名爲安樂。如是安樂亦名涅槃。”(『大正藏』12-746a)

108 正定聚niyata - rāsi : 모든 존재의 장래 운명을 세 가지로 분류(=三聚)하여 놓은 것 가운데의 하나로, 틀림없이 부처님이 된다고 결정되어 있는 성자. 구사교학에서는

ā - niyata - rāṣi¹⁰⁹)라고 한다. 내법¹¹⁰)에게는 니르와아나가 있고 없음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不定聚aniyata - rāṣi¹¹¹)라고 한다."

二簡凡聖門。聖有凡無。如地持經說。三乘聖人定有涅槃名爲正定。外凡定無名爲邪定。內凡不定名不定聚。

Ⅲ. 대승과 소승을 가리는 부문이다

대승과 소승을 구별하여 보는 부문에서는, 대승에는 nirvāṇa가 있으며 소승에는 nirvāṇa가 없다고 한다. 『妙法蓮華經優波提舍』에서 말한다.

"二乘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二乘은 nirvāṇa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¹¹²)

이제 이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한다.

"bodhisattva - mahāsattva는 mahā - nirvāṇa에 안주하며, 모든 부처님도

苦法智忍을 얻은 계위에 들어간 성자를 말하며, 대승에서는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꾸준히 진보하여 bodhisattva의 계위에 들어간 성자를 가리킨다.

109 邪定聚mithyā - niyata - rāṣi : 깨달을 수 없는 중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五無間業을 저지른 중생. 이것은 최악의 행위로 죽고 나면 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110 內凡 : 外凡의 반대말. 불교 안의 범부. 소승에서는 칠방편위 가운데의 賢位·頂位·忍位·世第一位인 四善根位인를 말하며, 대승에서는 十住·十行·十回向의 三賢位를 말한다.

그러나 『대승기신론』에서는 十信을 내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外凡 : 심신에도 들어오지 못한 외도를 말한다.

111 부정취aniyato - rāṣi : 正으로도 邪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중생

112 『妙法蓮華經優波提舍』

"無二乘者。謂無二乘所得涅槃。"(『大正藏』26-7b)

그렇기 때문이다."

三簡大小門。大有小無。法花論云。無二乘者。謂無二乘所得〈謂〉涅槃。今此經云。菩薩摩訶薩住大涅槃諸佛亦爾故。

IV. 원인과 결과를 가리는 부문이다

인위와 과위를 구별하는 부문에서는, 인위에는 nirvāṇa가 없으며, 과위에는 nirvāṇa가 있다고 한다.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nirvāṇa를 증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은 『大般涅槃經』의 「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에서 갖추어 말씀하는 것과 같다.

<nirvāṇa의> 공통되는 점과 국한되는 점에 대한 증명을 마친다.

四者簡因果門。因無果有。唯佛一人。證得涅槃。是義具如德王〔品〕說。通局門竟